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생활시간조사』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0. 10.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생활시간조사』 2010년 정기통계품질 진단”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 월 19 일

한국통계진흥원 이 동 명 ㉠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태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연구원	김정석 (동국대학교 교수)
연구원 (표본설계진단)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고영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생활시간조사」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주 제 어	생활시간
연구기간	2010년 4월 7일 - 10월 29일 (7개월)
연구기관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진구성	김태헌, 김정석, 이기재, 고영미
<p>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통계의 품질상태와 그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사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통계청이 1999년 제1회 조사를 기점으로 2004년 제2회, 2009년(3월, 9월 2차례) 제3회 표본조사를 완료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조사통계로 5년의 조사주기,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조사의 병행, 10분 단위 행동유형의 시간일지작성, 지리적 및 시간적 표본추출(계절성/요일)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생활시간조사」의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수집 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5개 부문 진단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내용과 성격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중장기적 개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급변하는 생활상을 반영하기에 조사주기가 너무 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사 횟수(연2회) 및 조사시점이 365일 안의 계절성 혹은 시기적 다양성을 보이기에 부족하다. 넷째, 생활시간외 부가적인 조사항목이 적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 제약된다. 다섯째, 일지작성능력이 부족한 인구집단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대리기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곱째, 현장조사원 교육기간 및 실사기간이 짧다. 여덟째, 응답 및 조사 부담이 높아, 응답자와 조사원관리가 힘들다. 아홉째, 조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비해 조사인지도가 낮다. 열째, 간행 보고물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요구되고, 내용과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슈들은 「생활시간조사」의 품질이 대체로 관련성,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생활시간조사」가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양한데, 시간일지작성자 구분항목 추가와 같이 즉각적인 것에서부터 인력 및 예산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이른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생활시간 조사를 살펴보면, 통일되거나 표준화된 조사방식은 없으며, 해당 국가의 기존제도와 필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다만, 조사시점을 다양화하려는 추세와 행동분류체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분명하다. 조사주기, 조사대상자선정범위, 조사내용 및 다른 조사와의 연계 등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험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p>	

품질보고서

『생활시간조사』 품질보고서

2010. 10.

차 례

- 1. 개요 1
- 2. 차원별 품질 상태 및 향상방안 3
 - (1) 관련성 3
 - (2) 정확성 3
 - (3) 시의성/정시성 5
 - (4) 비교성 5
 - (5) 일관성 6
 - (6) 접근성/명확성 6
- 3. 결론 7

표 차례

- <표 1> 「생활시간조사」 진단부문별 진단내용과 절차 2

1. 개요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통계청이 1999년 제1회 조사를 기점으로 2004년 제2회, 2009년(3월, 9월 2차례) 제3회 조사를 완료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10세 이상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24시간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민의 생활방식(life-style)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파악하는데 주된 의의를 두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시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통계자료로서의 「생활시간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자료 품질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성 있고 유의미한 노력이 된다.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통계의 품질상태와 그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사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조사통계이지만, 다른 조사통계와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1년 혹은 2년의 조사주기를 가진 대부분의 조사와는 달리, 5년이라는 조사주기를 가진다. 둘째, 자료수집방식에서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한다. 셋째, 자기기입식 조사내용이 이틀간에 걸쳐 10분 단위로 개개인의 생활행위를 기록하는 일지형태이며 복잡한 행동체계를 분류하게 된다. 넷째, 일지기록행위와 시간에 조사내용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문항들이 포함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생활시간조사」 특성은 조사통계들이 갖는 일반적인 어려움에 추가하여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여느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생활시간조사」 통계품질을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의 6가지 차원(dimension)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차원별 평가는 「생활시간조사」의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수집 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5개 부문 진단결과에 근거한다. 다음의 <표 1>은 5개 부문의 진단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표 1> 「생활시간조사」 진단부문별 진단내용과 절차

진단부문	진단자료수집대상	진단자료내용	진단자료수집방법
품질관리기반	· 통계작성 담당자	· 통계작성환경 인적, 물적자원 여건/조직관리 실태 및 담당자 인식/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 품질관리기반현황 표/면담조사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 「생활시간조사」 통계이용자명부를 통해 파악된 실제 이용자	· 「생활시간조사」 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표 · 표적집단면접(FGI) 녹취록 및 필드노트/ 회의록/개선요구사항	· 전화설문조사: 「생활시간조사」 이용자명부에서 파악된 60명 · FGI: 전문가(6명) 및 주요이용자(6명)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 통계작성담당자 (내부진단)/외부 전문가(외부진단)	· 통계작성기획/조사통계설계/자료수집/자료입력 및 처리/자료분석 및 품질평가/문서화 및 자료제공/사후관리/표본설계점검	· 세부작성절차별 점검표/제출된 근거자료/면담조사
수집 자료 정확성	· 조사기획자, 관리자,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 적절성/현장점검 및 관리체계/조사원 관리/응답자 관리	· 현장조사 정확성 점검표(조사기획자, 관리자, 조사원)/면담조사/현장방문
통계자료 서비스	· 2004, 2009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1,2,3권 ·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	· 이용자 안내정보/조사정보/모집단(조사대상)/자료집계/기타 수치, 표 형식, 내용, 용어, 단위, 주석, 출처, 영문 표기, 도표 및 그림, 항목명 등	· 발간물, DB 등의 오류점검 및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2. 차원별 품질 상태 및 향상방안

(1) 관련성(Relevance)

관련성은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이용자의 관점에서 해당 통계자료가 유의미하고 유용한가를 뜻한다(통계청, 2010). 전문가 및 일반이용자의 FGI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생활시간조사」의 관련성은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첫째, 5년 주기의 조사로는 급변하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조사주기를 1-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열의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조사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그 전문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조사주기의 단축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2009년도 조사가 일상생활의 계절성을 염두에 두고 봄, 가을 2차례에 실시되었으나, 유의미한 계절적 차이를 보여주기는 힘들다. 따라서 조사시점을 다변화하는 한편, 조사시점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넷째, 많은 이용자들이 「생활시간조사」 항목 이외에 포함된 항목이 적어 연구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에 추가적인 가구관련 항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청의 다른 사회조사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 연계된 사회조사에 포함된 항목들이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함께 분석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참값과 추정된 값의 차이인 오차가 적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조사통계에서는 포괄범위, 응답 및 무응답, 작성과정 등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표본오차 크기, 비표본오차 정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 차이 등을 통해 정확성을 진단하게 된다(통계청, 2010).

첫째, 조사원들의 지식 숙지여부 및 파악에서는 현장점검 결과, 조사에 대한 교육이 하루일정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너무 짧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일정을 좀 더 늘리는 한편, 일지작성 등의 실습과 그에 따른 점검

을 통해 조사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간통계자료검증, 최종 통계자료검증의 체계성, 잠정치와 확정치간의 불일치 원인파악 등에서는 '해당없음'이라는 평가가 내리고 있다. 이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중간통계자료가 생성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비해당으로 처리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서도 최종통계가 나오기까지 중간통계를 검증하고 이 둘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편작업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의 개편작업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순을 밟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개편계획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인 개편계획의 부재는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줄속으로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유의할 점이다. 이 외에도 정성적 분석에서 정확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된다.

첫째,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적 괴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응답자가 시간 일지를 스스로 기입하는 「생활시간조사」는 자기 기입 능력이 없는 조사대상자를 포함하기는 어렵다(예를 들어, 노년층).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 또한 이들을 제외한 모집단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조사모집단 규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와 성격을 좀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기입식 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기입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현장점검에서 조사원이 대리기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다. 조사대상층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굳이 대리기입의 사례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사표에 자기 기입과 대리기입을 구분하고 대리기입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사내용과 방식 및 특성에 비해 조사실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도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활시간조사」는 현장조사원들이 표본가구를 점검하는 준비조사(2일)에서 일지작성일자별로 조사가구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실사기간(12일) 동안 응답자의 응답 여부 및 정도,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회수된 자료의 행동분류를 검토하고 입력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으로 현장점검에서 보고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현장의 자료수집 정확성과 직결된다.

넷째, 응답자의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고, 10분단위로 생활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에게도 부담이 크다. 응답부담은 응답거부로 이어진다.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답례품(비) 준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일지수첩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인정하는 등은 응답률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를 가진다. 조사 호응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방송매체를 통한 「생활시간조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들 수 있다.

다섯째, 간행물(보고서)의 오류점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와 2009년도의 「생활시간조사」 보고서(각 3권)를 점검해본 결과, 수치상의 오류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용어선택, 편집상의 오탈자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보고서발간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점검과정이 요구된다.

(3)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작성기준 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고,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일부 주요통계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사전공표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이다(통계청, 2010).

「생활시간조사」는 시의성과 정시성이 높은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설정된 결과공표시점을 맞추려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지고 시간에 쫓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제2차 조사의 경우 조사시점은 2009년 9월 9일 ~ 9월 22일로 14일간이며, 결과공표시점은 2010년 3월 말이다. 그 결과, 사전에 예고된 시점에 발간된 통계간행물에서 오탈자와 편집상의 오류가 간혹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4) 비교성(Comparability)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국제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및 분류, 평가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작성주기가 부정기 또는 장기인 경우 담당자 변동, 환경변화 등으로 과거조사와의 개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이 달라져 시간적 비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통계청, 2010).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시계열적 비교편리성과 국가 간 비

교편리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계열적 비교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항목 및 개념 등이 매번 조사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더 상세히 전달하고 상이한 시점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행동분류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간 비교편리성을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는 몇 개국을 선정하여(행동분류자체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비교가능성을 추구하기는 힘들다), 행동분류체계의 공통요소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생활시간조사」 자체의 자료의 질 보다는 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연구용역의 몫이 된다고 본다.

(5) 일관성(Coherence)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낸다.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월)자료, 각 통계조사와 국민계정은 서로 다른 자료원과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나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면 일관성이 높은 것이다(통계청, 2010).

「생활시간조사」는 행위별 시간량과 시간대별 행위 등 고유한 영역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조사 자료와의 연계, 통합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향후 조사항목 추가시 혹은 통계표의 제목 및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조사 통계(예.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나 변수의 용어들을 통일성 있게 사용하기를 권한다.

(6)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작성 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통계 이용 상의 조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메타데이터)의 제공은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통계청,

2010).

「생활시간조사」 통계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생활시간조사」의 조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제1권 「생활시간량 편」, 제2권 「시간대별 행위자비율편」, 3권 「지역별 생활시간편」 등의 세 권으로 구성된다. 우선, 분량이 상당한 보고서를 종이책자형식보다는 e-book이나 PDF 파일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접근이나 보관 및 이용에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보고서의 내용면에서 주요한 통계표만을 추려서 한 권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한다. 기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KOSIS 등을 통해 접근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셋째, 「생활시간조사」 이용자들을 위해서 자료이용방법 및 마이크로데이터,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준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해 주기를 권한다.

3. 결론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통계의 품질상태와 그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사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통계청이 1999년 제1회 조사를 기점으로 2004년 제2회, 2009년(3월, 9월 2차례) 제3회 표본조사를 완료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조사통계로 5년의 조사주기,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조사의 병행, 10분 단위 행동유형의 시간일지작성, 지리적 및 시간적 표본추출(계절성/요일)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생활시간조사」의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수집 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5개 부문 진단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내용과 성격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중장기적 개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급변하는 생활상을 반영하기에 조사주기가 너무 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사 횟수(연2회) 및 조사시점이 365일 안의 계절성 혹은 시기적 다양성을 보이기에 부족하다. 넷째, 생활시간의 부가적인 조사항목이 적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 제약된다. 다섯째, 일지작성능력이 부족한 인구집단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현실적으로 대리기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곱째, 현장조사원 교육기간 및 실사기간이 짧다. 여덟째, 응답 및 조사 부담이 높아, 응답자와 조사원관리가 힘들다. 아

흡재, 조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비해 조사인지도가 낮다. 열재, 간행보고물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요구되고, 내용과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슈들은 「생활시간조사」의 품질이 대체로 관련성,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생활시간조사」가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양한데, 시간일지작성자 구분항목 추가와 같이 즉각적인 것에서부터 인력 및 예산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이른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생활시간조사를 살펴보면, 통일되거나 표준화된 조사방식은 없으며, 해당 국가의 기존제도와 필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다만, 조사시점을 다양화하려는 추세와 행동분류체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분명하다. 조사주기, 조사대상자선정범위, 조사내용 및 다른 조사와의 연계 등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험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 례

제 1 장 개요	1
제 1 절 통계 개요	1
제 2 절 품질진단 내용 및 방법	6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10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0
제 2 절 진단결과 종합(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26
제 3 장 해외사례 및 발전전략	35
참고문헌	41
<부록 1> 「생활시간조사」 FGI 결과보고: 전문가 집단	42
<부록 2> 「생활시간조사」 FGI 결과보고: 일반이용자 집단	48
<부록 3> 「생활시간조사」 정확성진단 점검표	53
<부록 4>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진단결과	59
<부록 5> 「생활시간조사」 봉사활동 확인서	66
<부록 6> 「생활시간조사」 시간일지기록: 간이용 수첩	67

표 차례

<표 1> 「생활시간조사」 통계작성 현황(2009년 조사기준)	2
<표 2> 「생활시간조사」 층화 및 분류지표	4
<표 3> 「생활시간조사」 조사항목(2009년 조사기준)	5
<표 4> 「생활시간조사」 진단부문별 진단내용과 절차	7
<표 5> 「생활시간조사」 작성절차별 세부 평가 결과	15
<표 6>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개요	17
<표 7>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문제점 및 개선의견	20
<표 8> 「생활시간조사」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33
<표 9> 「생활시간조사」 통계 국가별 국제비교	37

그림 차례

<그림 1> 「생활시간조사」 업무분장(2009년 조사기준)	3
<그림 2> 「생활시간조사」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12

제 1 장 개요

제 1 절 통계 개요

1. 「생활시간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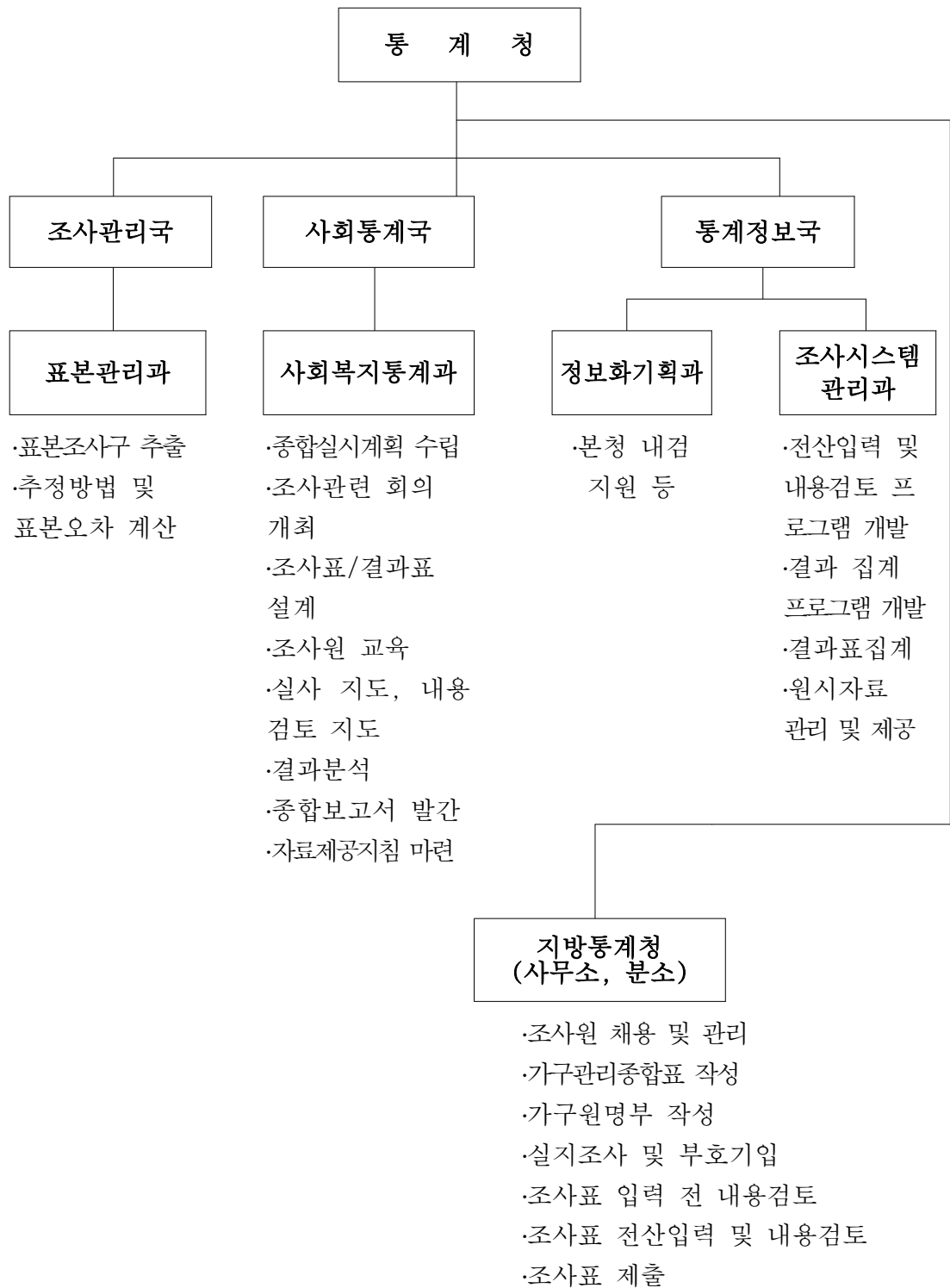
「생활시간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52호)로 통계청이 실시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이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일지(time-diary) 작성을 통해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한다. 둘째,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여 국민계정의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 및 학문적 연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한다. 개인을 조사단위로 하는 이 조사는 5년의 조사주기를 갖는다. 제1회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9월에 실시되었고, 제2회는 2004년(9월)에 실시되었다. 제3회 조사는 이전과 달리, 2009년 3월(1차 조사)과 9월(2차 조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본규모는 조사시점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전국 약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약 21,000명)이다<표 1 참조>.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체계는 통계청의 주관하에 각 지방통계청(사무소, 분소)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며, 일정기간 교육을 마친 지도원 및 조사원들은 선정된 조사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생활시간조사」의 업무분장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표 1> 「생활시간조사」 통계작성 현황(2009년 조사기준)

통 계 명	생활시간조사	
통계종류	지정통계-조사통계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 ·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계위성계정을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조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1998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조사 실시 · 1999년: 제1회 생활시간조사 실시(9월) · 2004년: 제2회 생활시간조사 실시(9월) · 2009년: 제3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연2회: 3월, 9월)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10152호)	
조사주기 및 조사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주기: 5년 · 조사규모: 약 21,000명(전국 약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사회조사 표본조사구 중 540조사구, 15가구/조사구당> 	
조사대상	조사단위	개인
	모집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10세 이상 가구원
	포괄범위	현역군인, 외국인, 요양소 등에 수용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가구내의 가구원
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3월): 2009년 3월 12일 ~ 2009년 3월 23일(12일간) · 제2차(9월): 2009년 9월 9일 ~ 2009년 9월 22일(14일간)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 작성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관련사항(4항목) · 개인관련사항(17항목) · 시간일지(2일) · 생활시간사용 만족도(1항목)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및 개인관련 항목: 면접조사 · 시간일지 및 생활시간 만족도: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인력 및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인력: 임시조사원 채용(조사구당 1명) · 조사체계: 통계청→지방통계청(사무소, 분소)→지도원 및 임시조사원→조사대상가구 	
공표주기	5년(2009년 조사: 간행물발간 2010년 3월 말)	



<그림 1> 생활시간조사 업무분장(2009년 조사기준)

2.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생활시간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으로 조사가 어려운 만 9세 이하 가구원, 현역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요양소 및 기도원 등에 수용된 자 등을 제외한 일반가구 내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한다. 2009년도 조사에서는 「사회조사(2008년)」 표본조사구 중 540조사구를 활용하였는데¹⁾, 이를 통해 전국의 약 8,100가구/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1,000명을 표본으로 삼고 있다. 표본설계 과정에서 지역별(시도), 요일별(평일, 토요일, 일요일) 등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규모를 고려하였다. 또한 표본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청 및 사무소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540개 조사구 일괄 추출 후, 1차 및 2차 조사용 각 270개 조사구를 골고루 추출하여 두 조사간의 표본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시도별 독립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대도시, 그리고 9개도의 동부, 읍면부 등 모두 2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층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구별로 주택유형, 자가소유 비율, 취업자 비율,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분류순서를 정하고 조사구명부를 정렬하였다<표 2 참조>.

<표 2> 「생활시간조사」 층화 및 분류지표

층화	· 지역 층화: 25개 층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동부 및 읍면부로 구분	
분류 지표	1차 분류	·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기타주택 중 구성비 높은 경우)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기타주택 구성비 높은 경우
	2차 분류	· 자가 소유 비율 ① 40%미만, ② 40~87%미만, ③ 87%이상
	3차 분류	· 취업자 비율 ① 37%미만, ② 37~52%미만, ③ 52%이상
	4차 분류	· 행정구역 및 조사구번호

1) 「생활시간조사」 표본추출에 이용된 2008년 사회조사 표본조사구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조사구 특성이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만을 조사모집단으로 사용하여 추출된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 및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3. 「생활시간조사」 조사항목

「생활시간조사」의 2009년 조사항목은 크게 가구관련사항 4개 항목, 개인관련사항 17개 항목, 시간일지(time-diary), 생활시간사용 만족도 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구관련사항은 농가·비농가여부, 주택종류, 입주형태, 주거용면적, 자동차보유 현황으로 구성된다. 개인관련사항은 인구학적 특성, 미취학 아동 유무 및 미취학 아동수,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이유, 성(gender)역할 태도,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상의 가구 및 개인관련사항은 조사원의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표 3> 「생활시간조사」 조사항목(2009년 조사기준)

구 분	조 사 항 목
가구관련사항 (4개 항목)	① 농가·비농가여부 ② 주택종류 ③ 소유형태 ④ 주거용 면적
개인관련사항 (17개 항목)	① 인구학적 특징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정도 ② 미취학자녀 유무(자녀수) ③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이유 ④ 성(gender)역할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⑤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 경제활동상태, 부업 여부, 일한 총시간, 산업 및 직업, 직장에서의 지위 및 근로형태, 주휴제도, 업무의 피로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이유, 개인 월평균 총소득
시간일지 (2일)	①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별로 이틀 작성 ② 10분 간격으로 「주행동」 및 「동시행동」 조사 ③ 재택상황(집안·밖)조사 ④ 이동수단 조사
생활시간사용 만족도 (1개 항목)	① 생활시간사용 만족도

시간일지는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를 이틀 동안 10분 간격으로 기록하며, 활동은 '주행동', '동시행동', '함께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또한 생활일지에는 '행위를 함께한 사람', '집안·밖에서의 행동' 및 '이동수단'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생활시간사용 만족도는 생활일지를 작성한 이틀(총 48시간)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이다. 따라서 시간일지와 생활시간사용 만족도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된다<표 3>.

제 2 절 품질진단 내용 및 방법

「생활시간조사」 통계품질은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 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5개 부문으로 진단하였다. 품질진단은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문별 진단내용과 절차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 품질관리기반

연구자는 품질진단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통계담당자에게 품질관리기반 진단의 취지, 내용 등을 공지하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진단계획과 일정에 대한 협조를 얻는 한편,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의 사전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후 작성된 현황표에 대해서 연구자가 일차적인 점검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통계 담당자가 재차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재작성된 현황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통계작성 여건 및 의견,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통계작성환경 진단을 통해 통계작성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한 이 작업은 해당 통계담당자가 제출한 현황표와 면담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2)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는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정도와 요구사항의 반영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생활시간조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설문조사와 「생활시간조사」 통계의 관련 전문가와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을 실시하였다.

<표 4> 「생활시간조사」 진단부문별 진단내용과 절차

진단부문	진단자료수집대상	진단자료내용	진단자료수집방법
품질관리기반	· 통계작성 담당자	· 통계작성환경 인적, 물적자원 여건/조직관리 실태 및 담당자 인식/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 품질관리기반현황 표/면담조사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 「생활시간조사」 통계이용자명부를 통해 파악된 실제 이용자	· 「생활시간조사」 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표 · 표적집단면접(FGI) 녹취록 및 필드노트/ 회의록/개선요구사항	· 전화설문조사: 「생활시간조사」 이용자명부에서 파악된 60명 · FGI: 전문가(6명) 및 주요이용자(6명)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 통계작성담당자(내부진단)/외부 전문가(외부진단)	· 통계작성기획/조사통계설계/자료수집/자료입력 및 처리/자료분석 및 품질평가/문서화 및 자료제공/사후관리/표본설계점검	· 세부작성절차별 점검표/제출된 근거자료/면담조사
수집 자료 정확성	· 조사기획자, 관리자,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 적절성/현장점검 및 관리체계/조사원 관리/응답자 관리	· 현장조사 정확성 점검표(조사기획자, 관리자, 조사원)/면담조사/현장방문
통계자료 서비스	· 2004, 2009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1,2,3권 ·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	· 이용자안내정보/조사정보/모집단(조사대상)/자료집계/기타 수치, 표형식, 내용, 용어, 단위, 주석, 출처, 영문표기, 도표 및 그림, 항목명 등	· 발간물, DB 등의 오류점검 및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한국통계진흥원이 전화조사로 수행하였으며, 품질을 위해 마련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생활시간조사」 이용자들로 그 명단의 출처와 정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당 통계담당자가 제공

한 이용자 명부는 ① 2004년 생활시간보고서 배포처(정부기관, 법원, 통계청, 방송국, 신문사, 협회 및 단체 등을 포함한 378곳) ② 2003-2009년 전문가회의 참여자 명부(중복포함 42명) ③ 성과팀 고객만족도 명부(중복포함 109명) ④ 품질관리과 제출명부(중복포함 23명) ⑤ 2006년까지의 논문발표저자 목록(중복포함 69명) ⑥ 2006-2009년 원자료 이용자 명부(총 99인/중복포함) 등이다. 이 중에서 ① 2004년 생활시간보고서 배포처는 기관이므로 이용자만족도에 대한 조사대상 자료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연구진은 그 외 명부들에서 전화번호가 표기된 사례(중복사례는 제외)들을 정리해 통계진흥원에 일차적으로 전달했다(총 175 사례 중 전화번호가 확인된 사례는 54사례). 이후 통계진흥원에서 전화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총 60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이용자 적합성에 바탕을 두고 이용자가 직접 진단한 평가점수의 형태를 취한다.

표적집단면접(FGI)은 전문가 집단과 일반이용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1차례씩 실시되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이용자 집단을 분류한 것은 두 집단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전문가 표적집단면접의 참석자는 전문가들의 학술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생활시간자료를 분석 및 활용한 경험한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이용자는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만족도 명부를 바탕으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은 통계작성과정이 통계작성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 뿐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분석하는 과정이다.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진단은 「생활시간조사」 통계담당자인 내부진단과 외부전문가 2인이 실시하는 외부진단 및 연구진 진단으로 이루어졌다.

내부진단은 통계담당자에게 진단 내용을 공지 및 설명하고,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의 작성 및 관련 근거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했다. 근거자료는 품질진단서 각 지표상의 통계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근거 자료로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진단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외부진단은 외부진단위원으로 위촉된 2인의 외부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외부진단위원 1은 과거 「생활시간조사」 연구사업 참여 및 이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며, 외부진단위원 2는 「생활시간조사」 자료 이용 경험

및 전문가회의 등의 경험이 있는 교수로 선정하였다. 위촉된 외부진단위원은 내부품질점검표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내부점검표를 재진단하였다. 또한 외부진단위원들은 해당 통계의 작성절차에 대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내부 및 외부 진단위원이 작성한 점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생활시간조사」 통계담당자와의 면담 및 환류(feedback)를 통해 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표본전문가를 통해 「생활시간조사」 표본 설계 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결과 분석과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정리에 결과를 반영하였다.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수집 자료의 정확성 진단은 통계자료가 수집되는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으로, 자료수집방법의 타당성과 절차적 오류에 초점을 둔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지 오래되었다는 점(2009년 3월과 9월)으로 인해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시간조사」 실사과정의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기획자, 관리자, 조사원과의 현지면담을 통해 현장조사 실태를 직접 확인 점검하였다. 점검대상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 조사기획자(통계작성담당자)를 포함하여 서울(경인), 춘천(동북), 대전 및 충주(충청), 제주(호남) 지역의 지방통계청(사무소)의 「생활시간조사」 통계 관리자 및 임시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지역은 통계작성담당자의 추천 및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지방통계청별로 많은 조사구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5) 통계자료 서비스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은 첫째, 주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오류의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고, 둘째, 작성된 통계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로 통계간행물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생활시간조사」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은 공표자료인 2004년 생활시간보고서 1, 2, 3권 및 2009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1, 2, 3권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http://survey.go.kr/lifestyle/>)의 자료를 근거로 공

표자료 오류와 이용자 편의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중 2009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는 7월말 발간 예정으로 연구진 또한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

「생활시간조사」 공표자료 오류는 수치자료,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용어해설, 기타(목차 및 색인, 한글 및 영문 표기의 적절성, 통계표 제목 적절성)등의 진단항목을 점검하였다. 이용자 편의사항은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개요, 표본특성과 관련한 설명, 용어해설, 부록 등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하였다. 공표자료 오류와 이용자 편의사항 진단은 연구진 점검 후 「생활시간조사」 통계담당자의 확인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류사항을 유형별로 집계 및 분석하였다.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 품질관리기반

「생활시간조사」 담당자와의 면담조사 및 진단표를 활용해 품질관리기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업무담당자는 2009년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를 담당하였으며, 그 이전의 2004년도와 1999년도의 「생활시간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품질관리기반에 대한 평가 또한 2009년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1) 업무의 단절성

여느 사회조사와 마찬가지로 「생활시간조사」 또한 준비 및 시험조사(1년), 본조사(1년), 결과공표 및 연구용역(1년)으로 대체 3년에 걸쳐 마무리된다. 그런데 조사주기는 매5년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업무의 주기와는 거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업무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다른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정작 「생활시간조사」에는 이들이 배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생활

시간조사」는 이틀간의 생활일지를 통해 개인들의 행동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 면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 있는 업무담당자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5년의 「생활시간조사」 주기와 3년의 업무완료주기간의 불일치는 전문적 업무 담당자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

(2) 한정된 인적자원과 과중한 업무량

「생활시간조사」의 담당인력을 보면, 대체로 준비 및 시험조사 기간(2008년)과 본조사 기간(2009년)에 걸쳐 3인으로 구성된다. 분석 및 공표가 이루어지는 제3년차(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담당자 1인 외에 기존의 업무담당자 1인만이 남아 업무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량이 과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이 까다로운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나는 업무담당인력의 부족현상과 과중한 업무분량은 업무담당자의 열의와 관심을 떨어뜨려, 결국 조사의 기획, 조사실시, 분석 및 공표 각 단계에서 업무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3)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

「생활시간조사」는 임시조사원의 가구 및 개인관련조사 이 외에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일지(diary)가 그 핵심을 이룬다. 조사환경이 어려워진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덧붙여, 일지작성을 통한 응답자의 부담이 높고, 복잡한 행동유형을 코딩하는 현지 임시조사원의 부담이 높다. 응답자에 대한 답례품 및 조사업무량 대비 조사원의 수당 등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곧 현재 「생활시간조사」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응답자들의 조사 참여기피, 조사원 확보의 어려움과 불성실한 현장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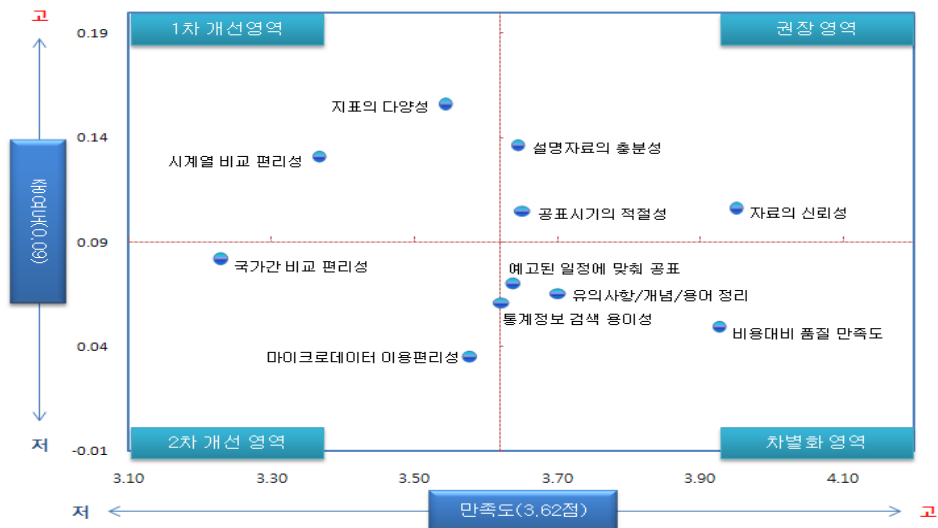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는 (1) 통계진흥원에서 실시한 전화조사 (2) 전문가 및 주요이용자들의 표적집단면접(FGI) 을 통해 진단되었다.

(1)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용목적(학술용, 보도용 등)이나 이용내용(원자료 및 보고서 자료)등의 구분과 함께 이용자들의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명부들이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여러 명부에 걸쳐 중첩적으로 나타나거나 동일명부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응답자들은 총 60명으로 소수일 뿐 아니라 이용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연령이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나 연구기관에 몸담고 있으며, 통계활용빈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를 반영하듯 이용목적 또한 주로 연구나 학술 및 학습활동이다. 그런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은 20% 정도이며, 대체로 DB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자료의 신뢰성, 비용대비 품질 만족도 등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자료라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감하는 전반적 만족도에 중요한 항목으로는 지표의 다양성, 설명자료의 충분성 등을 들 수 있다. 지표의 다양성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높지만 정작 그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표의 다양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은 「생활시간조사」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그림 2> 「생활시간조사」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앞서 언급한 지표의 다양성 항목은 1차 개선영역(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영역)에 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계열 비교편리성 또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1차 개선 영역에 속해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동시에 낮은 2차 개선영역에는 국가간 비교편리성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편리성이 속해 있다. 비록 국가간 비교편리성이 2차 개선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중요도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1차 개선영역과 큰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간 비교의 편리성은 시계열 편리성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 볼 사항으로 한편으로는 국제비교를, 또 한편으로는 시계열적 추이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그림 2 참조>.

(2) 전문가 및 주요이용자들의 표적집단면접(FGI)

① 전문가 표적집단면접

학술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 6명으로 구성된 전문이용자들의 대다수는 자료 생성과정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료이용자로서의 입장에서 토론을 전개하였다. 우선 이들은 공통적으로 통계청이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가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 혹은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가용한 변수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성별, 연령별로 생활시간량과 생활시간대를 살펴보는 기초분석작업을 넘어서서 다양한 변인을 통해 생활시간량과 생활시간대 및 행동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생활시간이나 행동 이외 조사된 경제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내용이 적다는 점은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을 크게 제한한다.

조사시점을 봄, 가을로 나누어 계절성을 파악하려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3월과 9월이 적정시점인지에 대한 이견도 없지 않다. 특히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되는 3, 9월이 과연 1년 생활주기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생활시간의 계절성을 보여준다면 좀 무리를 하더라도 4계절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조사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일정수의 표본만 유지될 수 있다면, 조사주기 단축, 조사시점의 다양화(4계절)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생활일지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기록, 수집, 코딩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를 동안의 생활을 10분단위로 과연 응답자가 정확히 기록할 것인

가가 논의거리로 나오면서 대리응답 및 대리기입 등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였다. 한편, 행동분류가 매우 복잡한데, 어느 정도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현장에서 분류하고 코딩할 수 있는지 등 현장의 임시조사원의 업무를 점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현장자료수집의 정확성에 대한 주의를 뜻한다. 이 외에도 조사주기에 따른 업무담당자들의 지속성과 전문성, 인력확보의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② 일반이용자 표적집단면접

일반이용자 표적집단면접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대학원생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보다 많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대학원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5년이라는 조사주기는 이를 반영하기에 너무 길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문가 표적집단면접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장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둘러싼 자료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비현실적으로 높은 응답률에 대한 해명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조사문항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심층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에 대한 진단은 업무담당자의 내부진단 1건, 외부진단 2건과 연구자 진단 1건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각 절차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인데, 여기에서는 내부진단에 비해 차이가 두드러진 외부진단의 항목, 비슷한 평가점수라 하더라도 의견이 다른 항목, 진단자들간에 공통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5 참조>.

통계작성기획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개편작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진단자들마다 다소 상이하다. 특히 내부진단에 비해 외부진단1의 점수가 낮으며, 연구자 또한 점수는 높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부진단1과 연구자진단은 개편작업을 위한 기본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전문가 및 내부회의 등이 개최되고, 이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 수반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상의 개편작업이 조사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중장기적인 개편계획과 방향 및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따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편작업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 설계에 있어서는 내부진단, 외부진단

및 연구자진단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점수가 나타나고 있다.

<표 5> 「생활시간조사」 작성절차별 세부 평가 결과

절차	지표	품질자원	내부 진단 (A)	연구자 진단 (B)	외부 진단 (C)	외부 진단 ² (C)	차이 (A-B)	차이 (A-C)	차이 (B-C)	총합
1. 통계작성 기획	1-1 통계작성 목적 제시	관련성	5	5	5	4	0	0.5	0.5	
	1-2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파악	관련성	5	4	5	4	1	0.5	-0.5	
	1-3 개념, 용어, 분류체계의 타당성	관련성	5	5	4	5	0	0.5	0.5	
	1-4 국제 기준 준수여부	비교성	4	4	5	4	0	-0.5	-0.5	
	1-5 개편작업의 적절성	정확성	5	4	3	4	1	1.50	0.5	
	평균			4.80	4.40	4.30	0.40	0.50	0.10	4.50
2. 조사 통계 설계	2-1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정확성	5	5	5	5	0	0	0	
	2-2 조사표 응답자 편의성	정확성	5	5	5	5	0	0	0	
	2-3 조사항목의 사전검증	정확성	5	5	5	4	0	0.5	0.5	
	2-4 표본오차 관련 지표 작성	정확성	5	4	5	5	1	0	-1	
	2-5 표본규모의 적정	정확성	5	5	5	4	0	0.5	0.5	
	2-6 표본 관리 여부	정확성	5	4	4	4	1	1	0	
	2-7 표본설계 정보 공개 여부	정확성	5	5	5	5	0	0	0	
	평균			5.00	4.71	4.71	0.29	0.29	0.00	4.81
3. 자료 수집	3-1 조사원에 대한 상세 지침 제공	정확성	5	5	5	5	0	0	0	
	3-2 조사 직원 교육실시 여부	정확성	5	4	4	5	1	0.5	-0.5	
	3-3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	정확성	5	5	5	5	0	0	0	
	3-4 현장조사 업무량 파악 정도	정확성	4	5	5	4	-1	-0.5	0.5	
	3-5 조사 직원 지식 숙지여부파악	정확성	3	3	3	3	0	0	0	
	3-6 현장조사시 문의사항 처리체계	정확성	5	5	4	5	0	0.5	0.5	
	평균			4.50	4.50	4.42	0.00	0.08	0.08	4.47
4. 자료 입력 및 처리	4-1 표준화된 자료입력 체계	정확성	5	5	5	4	0	0.5	0.5	
	4-2 체계적인 에디팅 작업 실시여부	정확성	5	5	5	5	0	0	0	
	4-3 무응답 실태 파악, 분석	정확성	5	3	5	3	2	1	-1	
	4-4 현장조사의 내용검토 절차 파악	정확성	5	5	5	5	0	0	0	
	평균			5.00	4.50	4.63	0.50	0.38	-0.13	4.71
5. 자료 분석 및 품질 평가	5-1 관련 자료 또는 통계 파악 여부	일관성	5	4	4	5	1	0.5	-0.5	
	5-2 시계열자료의 연속성	비교성	5	5	5	5	0	0	0	
	5-3 통계표간 일관성 검토 여부	일관성	5	4	4	4	1	1	0	
	5-4 통계자료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비교성	4	4	5	4	0	-0.5	-0.5	
	5-5 모수 추정절차의 적정성	정확성	5	4	5	5	1	0	-1	
	5-6 중간 통계 자료 검증	정확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7 최종 통계자료 검증의 체계성	정확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8 잠정치, 확정시간 불일치 원인파악	정확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평균			4.80	4.20	4.60	0.60	0.20	-0.40	4.53
6. 문서화 및 자료 제공	6-1 관련 자료의 문서화 여부	정확성	5	4	5	5	1	0	-1	
	6-2 간행물 오류점검 여부	정확성	5	4	5	5	1	0	-1	
	6-3 간행물 통계관련자료 수록여부	접근/명확	5	5	5	5	0	0	0	
	6-4 개편 후 이용자 공개 여부	접근/명확	5	4	5	5	1	0	-1	
	6-5 조사 항목 공표 여부	접근/명확	5	5	5	5	0	0	0	
	6-6 이용자의 자료접근 동시성	접근/명확	5	5	5	5	0	0	0	
	6-7 적정 시점 공표 여부	시의/정시	5	4	5	4	1	0.5	-0.5	
	6-8 공표 절차 준수 여부	시의/정시	5	4	5	5	1	0	-1	
	6-9 다양한 매체 결과자료 제공여부	접근/명확	5	5	5	5	0	0	0	
	6-10 개인 비밀보호 장치 마련	관련성	5	5	5	5	0	0	0	
	6-11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설명	일관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평균			5.00	4.50	4.95	0.50	0.05	-0.45	4.82
7. 사후 관리	7-1 체계적인 통계작성과정 관리	정확성	4	5	5	4	-1	-0.5	0.5	
	7-2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	관련성	4	4	5	4	0	-0.5	-0.5	
	7-3 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관련성	5	4	5	5	1	0	-1	
	7-4 통계작성 품질관리 여부	관련성	5	4	5	4	1	0.5	-0.5	
	평균			4.50	4.25	4.63	0.25	-0.13	-0.38	4.46

표본오차 관련 지표산출, 표본규모의 적정성, 표본관리 등의 업무는 「생활시간조사」 담당자가 아니라 표본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생활시간조사」 담당자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표본 관리과에 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검토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를 조사에 반영하고 있다. 자료수집 절차 또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조사원의 지식 숙지여부과목' 문항의 평가점수가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내부진단, 외부진단, 연구자진단에서 동일하다. 「생활시간조사」의 임시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들이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힘들다. 다만 표준적인 교육과 더불어, 일지를 직접 작성해보는 등의 실습을 통해 조사내용과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다른 조사원의 업무보고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대체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재교육을 위한 시간이나 별도의 노력은 확보될 수 없는 상황이고, 개별 조사원이나 현장지도자에 의한 개별적인 (재)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임시조사원이 가구 및 개인 관련사항을 면담 조사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일지작성요령을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숙지정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자료입력 및 처리 절차에서는 무응답실태 파악 및 분석 항목에서 진단자들간의 이견이 발견된다. 대체적으로 「생활시간조사」에서 최초의 표본리스트 가구 중에 불응 및 불능가구를 파악하고 이를 대체하는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불응 및 불능가구의 비율 및 대체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 회수정도에서 소수의 미회수 가구원을 성 및 연령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불응 및 불능 조사가구에 대한 지역분포, 사유별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찾을 수 없다. 한편, 무응답가구원이나 항목 무응답에 대한 지침, 처리과정 및 분석 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단계에서 두드러진 점은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중간통계 및 최종통계자료의 검증에 대한 지침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잠정치와 확정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 둘 간의 불일치에 대한 점검도 없다. 이는 행동별, 시간대별, 시간량별로 살펴볼 수 있는 세부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간통계를 산출하고, 잠정치를 발표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동 및 시간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간통계 및 최종통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화 및 자료제공에 있어서는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설명 항목에 대한 '해당없음' 평가가 눈에 띈다. 이는 현재 「생활시간조사」가 그만큼 독특한 성격을 지닌 조사(즉, 생활일지를 통해 행위별 시간량과

시간대과약)임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사후관리에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표본설계진단은 위촉된 표본전문가 1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표본설계 점검시 2004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및 2009년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보고서를 참고로 검토하였다.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진단의 점검사항은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표본의 크기, 가중치, 추정식 등 표본설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며,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모든 사람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 내의 가구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함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사회조사의 표본조사구 사용 - 개인의 사생활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는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상 사회조사를 통해 통계청에 대한 인지도가 확보된 사회조사 표본조사구(1,333개)를 사용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A), 일반조사구(1)인 경우만을 조사모집단으로 사용하여 추출됨. 조사구 내 집단가구(기숙사, 보육원 및 양로원 등 시설가구는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됨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 표본추출방법 : 층화 2단 집락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확률비례추출방법을 이용하여 1,333개 조사구 추출 - 1차 추출 단위(PSU, 조사구) : 확률비례추출 적용 - 2차 추출 단위(SSU, 가구) : 첫 가구를 단순임의추출 후 연속된 15가구를 조사함 ◦ 「생활시간조사」 조사구 추출방법 : 계통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 표본조사구(1,333개)를 2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각 층에서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540개 조사구 추출함 - 표본조사구 내의 사회조사 응답 가구 전체 조사함(각 조사구당 15가구) : 총 8,100가구(회당 4,000가구) - 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전체 조사(약 2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및 2차 조사용 조사구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3월) 및 2차(9월)로 나누어 조사하는 목적이 국민들의 계절별 생활실태 차이 유무를 파악하고자 함으로 표본으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추출된 조사구 중 홀수번째 조사구를 1차 조사용으로 짝수번째 조사구를 2차 조사용 조사구로 선정하여 두 조사간에 특성 차이를 최소화 함
<p>표본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0개 조사구, 각 조사구에서 15가구 조사(총 8,100가구) -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전체 가구원 조사를 통해서 약 21,000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p>가중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사후층화 보정을 산정되었음 -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값으로 추출율의 역수임, 생활시간조사는 사회조사시 추출된 표본에서 재추출되었으므로 사회조사의 추출률에 생활시간조사구 추출률을 반영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w_{hi}^0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times \frac{n_h}{l_h} = \frac{S_h}{15 \times l_h}$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설계가중치 설계가중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dots, 25$) · i : 사회조사 표본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i = 1, 2, \dots, n_h$) · S_h : 사회조사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측도(설계당시 지역별 전체 가구수) · M_{hi} : h지역, i번째 사회조사 표본조사구내 전체 가구 수 · n_h : h지역내 사회조사 표본조사구 수 · m_{hi} : h지역, i번째 조사구내 사회조사 표본 가구 수(15가구) · l_h : h지역내 생활시간조사 표본조사구 수 - 사후층화보정 : 성·연령그룹별로 추계인구에 맞게 보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w_{hij} = w_{hij}^0 \times \frac{X_{h,sa}}{\widehat{X}_{h,sa}}$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 : 모집단 추정치 · \widehat{X} : 표본에서 조사된 응답자 총 가중값 · j :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k = 1, 2, \dots, m_{hij}$) · sa : 성별 및 연령별 그룹

추정식	<p>- 평균시간 :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행동별 평균시간, 주행동만 집계한 경우 1일 전체 평균시간의 합은 24시간 임</p> <p>- 추정값, 표준오차 및 분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bar{y}_G = \frac{\sum_h \sum_i \sum_j w_{hij} y_{hij} I [hij \in G]}{\sum_h \sum_i \sum_j w_{hij} I [hij \in G]}$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 = 1, 2, \dots, H$: 지역(특광역시, 시도 동부 및 읍면부) · $i = 1, 2, \dots, n_h$: 조사구 · $j = 1, 2, \dots, m_{hi}$: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w_{hij} = h$시도의 i 조사구내 j번째 가중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widehat{Var}(\bar{y}_G) = \frac{\sum_h \frac{n_h}{n_h - 1} (1 - f_h) \sum_{i=1}^{n_h} \left[W_{hiG} (\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 W_{hsG} (\bar{y}_{hsG} - \bar{y}_G) \right]^2}{\left(\sum_h \sum_i W_{hiG} \right)^2}$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_{hiG} = \sum_j w_{hij} I [hij \in G]$ · $I(hij) = \begin{cases} 1 & \text{if } I [hij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CV = \frac{SE(\bar{y}_G)}{\bar{y}_G} \times 100$ </div>
-----	--

표본설계 점검 결과 「생활시간조사」의 표본추출방법, 가중치, 추정식 부문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진단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공되었다 <표 7 참조>.

<표 7>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문제점 및 개선의견

부분	문제점	개선의견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3월) 및 2차(9월)로 나누어 국민들의 계절별 생활실태 차이 유무를 파악하고자 함. 하지만 2개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절적 생활실태 차이 유무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크기를 늘리고 월별로 배분하는 방안 또는 rolling sampling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임.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 작성에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보정만을 반영하고, 무응답 조정은 거치지 않았음. 이는 실사 과정에서 무응답이 거의 없다는 의미임. 실사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응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됨. 아울러 가중치 작성과정에 무응답 조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보고서 상에 제시된 가구기준 회수율이 99.9%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조사의 응답률과는 다른 의미로 판단됨. 표본대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불균등 가중치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가중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특이치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생활시간조사」는 자기기입식(시간일지)과 면접조사(가구 및 개인관련사항)가 혼합된 방식이다. 조사원들은 면접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자들에게 시간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회수하여 현장내검과 코딩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시간조사」 방법론상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조사의 정확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1)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원칙적으로 시간일지는 응답자 자신이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에서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에게 휴대용 일지(메모 수첩)를 배포함으로써 시간일지작성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응답자들로서는 시간일지작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도 하다. 가령, 눈이 어둡고 글쓰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이 스스로 일지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현장에서는 조사원들이 노인들의 기억을 더듬어 일지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다. 한편, 조사대상가구내에서 특정 가구원은 본인이 일지를 작성하기 보다는 다른 가구원에게 대신 부탁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령, 비일상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귀가시간이 늦은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시간일지를 작성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리기입 및 대리응답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란 어렵다.

(2)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조사일정상 지침서 전달교육시간, 준비조사기간, 조사표 정리 및 내검시간, 전산입력기간 등이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사와는 달리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응답가구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가구의 가구원에게 일지작성요령을 숙지시키고, 일지작성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회수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일지작성요령을 응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시간이 요구된다. 한편, 표본가구점검(준비조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5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시간일지작성요일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요일별 시간일지에 맞추어 주어진 조사구내에서 대체가구를 확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조사원들이 회수한 시간일지를 행동분류표에 따라 코딩하고 내검하는 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현재의 촉박한 조사일정은 조사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조사원 관리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원의 역할은 다른 조사보다도 훨씬 크다. 이는 생활 시간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많이 노출시키기 때문에 응답거부율이 그 만큼 높고 시간일지전달, 회수 및 점검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업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원(조사관리자 포함)으로서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2009년도 1차(3월)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이 2차(9월)조사에 다시 참여하는 비율은 저조하다(지방통계청의 담당직원들이 가진 개인적인 맥과 친분을 통해 2차조사 참여 조사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숙련도가 높은 조사원들이 「생활시간조사」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뜻이 된다.

조사원들의 행동분류 코딩 작업이 쉽지 않고, 동일 가구내 가구원들간의 내적 일관성 점검을 통해 현장내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원들의 숙련도, 업무인지도 및 조사경험 등은 조사의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그 방식과 교육시간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신규조사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교육시간과 실사실습이 이루어져야 유경험 조사원들의 숙련도에 근접할 것이다. 또한 조사원이 외진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관리자 혹은 지방청의 조사지도원과의 대면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관리를 받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사원들의 조사업무 능력 편차는 초기표본응답가구 확보나 응답내용의 점검 등에서 조사원간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4) 응답자 관리

「생활시간조사」는 사생활을 노출하고 10분단위의 일지를 응답자가 기입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 또한 일지기록능력이 없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가구나 가구원(불능)이 많을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대체가구가 2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표본리스트에서 불능 혹은 불응가구가 체계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면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불능 혹은 불응가구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한 가지 지적할 점은 조사표 회수율이 98%이상으로 발표하는데, 이는 대체표본을 포함한 비율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시간일지 작성일자가 5그룹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된 표본 내에서도 일자를 맞추다 보면 가구대체가 매우 어렵고 복잡해진다. 해당요일에 적격한 대체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은 결국 촉박한 조사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어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5. 통계자료 서비스

2004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1, 2, 3권), 2009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1, 2, 3권) 및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http://survey.go.kr/lifestyle/>)의 자료를 근거로 공표자료 오류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의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표자료 오류 점검

2004년, 2009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3권(생활시간량편,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편, 지역별 생활시간편)에 근거한 오류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의 통계표 부분이 방대한 분량이므로 통계표 부분은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검토하였음을 밝혀둔다.

① 수치자료

보고서와 통계 DB 수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고서의 통계수치 또한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계열상의 이상치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또한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보고서의 통계표 부분이 해당 조사 연도의 결과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실상이마저도 방대한 분량이다). 2004년, 2009년도 조사보고서의 경우, 해당 조사연도의 주요결과 일부를 도표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 조사와 단순 비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 자료로서의 일관성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② 통계표 형식 및 내용

보고서의 'Ⅲ 통계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통계표 형식과 내용에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2009년 보고서의 일부 통계표에서 표 및 표 제목의 위치 및 글자크기에 있어 통일되지 못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예. 2009년 보고서 제1권 63, 450, 452쪽 등). 자료출처의 명확성 등은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의 경우 인용통계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보고서의 'Ⅱ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주요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확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행위시간과 행위자 비율을 동시에 제시할 때, 범례에 시간과 비율을 명확히 단어로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예. 2004년 보고서 제1권, 40, 44, 45쪽). 단위표기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통계단위 표기에 있어 「생활시간조사」 통계표의 대부분은 '(시간:분)'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2009년 보고서 일부 통계표의 단위는 '(시:분)'으로 표기하고 있다.

③ 용어해설

용어해설은 대체로 적절하고 통일되게 사용되고 있다. 인용통계가 없으므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비교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다만 2004년도 조사보고서의 용어에서 '비맛벌이 가구'나 '편부모가구' 등의 용어는

가급적 피하기를 권한다. '비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 '편부모가구'는 '한부모가구'(2009년 조사보고서에는 '한부모가구'로 수정되어 표기함)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일(수입노동)'이라는 용어사용 또한 '유급노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2004년 제1권 49-50쪽, 2009년 보고서 제1권 42쪽).

2009년 조사보고서의 경우에도 2004년 조사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들(예. '비맞벌이 가구', '편부모 가구', '일(수입노동)')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용어의 통일성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04년 보고서의 49~67쪽 에서 1999년 조사결과와 대비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5년 전보다', '5년 전에 비해', '5년 전 대비' 등을 쓰고 있는데, 이들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④ 기타 오류

목차나 색인 등은 본문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및 한글 표기(혹은 설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표 제목의 경우, '학생의 재학정도별(예. 2004년 제1권 36, 51쪽), 학교급별(예. 2009년 제1권, 37쪽)'이라는 제목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 중, 고등, 대학교 등의 학교구분이다. 재학은 명목변수(예, 아니오로 구분)로 정도(degree)라는 개념이 적합하지 못한 변수이다. 적절한 대안이 떠오르지는 않으나, 교육기관이나 학교별 등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한다.

보고서의 'II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부분에서 주요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적절한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보고서 제1권 49쪽에는 '2 주요 계층별 생활시간 활용실태'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은 인구특성별 실태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한편, 서술방식도 대체로 개조식으로 한 문장씩 끊어 쓰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문장을 늘여서 쓰기도 한다(아래 예제참조: 2004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제3권 32쪽).

○ 학생들이 학교의 학습을 한 비율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공표자료 오류점검 중 오류가 발견된 부분은 기타오류 중 오타자, 수식 및 단위 표기의 통일성, 띄어쓰기 등 편집상의 오류들이다. 특히 2009년 보고서

제1권에서 괄호 사용, 위첨자, 오타자, 수식 및 단위 표기의 통일성, 구두점 사용, 띄어쓰기 등의 오류는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2)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2004,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3권(생활시간량편,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편, 지역별 생활시간편)과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에 근거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를 위하여

이 부문에서는 조사보고서와 홈페이지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자료출처는 해당 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따로 표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잠정치 및 확정치 등의 수록은 해당 사항이라 볼 수 없는데,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이상의 정보들을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② 조사정보

조사정보에 관한 대다수의 항목들도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통계자료 비교를 위한 기준과 내역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자료수집(조사표 등)의 변경에 대한 정보는 충실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99년, 2004년, 2009년 조사 각각의 조사표 등은 연도별로 제공되고 있으나, 각 연도를 비교해서 변경내역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③ 모집단 및 표본설계

이 부문에서도 대다수의 이용자 필요항목들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모집단의 근접성에 대한 설명은 찾기 힘들다. 한편 표본들의 변경 등은 해당 조사의 표본들이 다른 조사의 표본조사구에서 오기 때문에 따로 그 변경내역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④ 자료 집계 및 추정

이 부문에서도 대다수의 필요항목이 이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다만 계절조정기법에 대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9년도 조사가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지만, 시계열적 자료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 2 절 진단결과 종합(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생활시간조사」의 부문별 진단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이슈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나 효과 또한 중복되거나 중첩된다.

1. 절대적 인력 및 예산부족, 중장기적인 계획결핍

2009년 조사의 경우, 기획, 관리 및 분석 등에 투입된 본청의 인력은 3인이다. 그나마 이 인력도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이루어지는 2008년과 2009년에만 투입되고, 보고서발간 및 심층분석 등이 이루어지는 2010년에는 배정인력이 적어진다. 이들이 「생활시간조사」에만 집중한다 하더라도 조사의 수준과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배정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통계작성담당자의 업무지속성이나 전문성도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는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주기(5년)가 부서간 업무자순환주기와 맞물리지 않는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자와 현장조사원의 부담(사생활의 노출, 일지작성 등)이 높은 조사 특성에 비해 배정된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력 및 예산부족과 함께,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도 필요하다. 2009년도 조사는 이전에 비해 표본규모가 작아지고, 조사시점이 봄, 가을로 나뉘는 등의 개편작업이 있었다. 물론, 통계청내에서 이에 관한 사전회의나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편작업이 조사가 임박해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또한 조사내용에서도 「생활시간조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성역할태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생활시간조사」의 목적과 의의를 다시 정립하고, 그에 맞는 내용 및 방식 등을 보다 긴 관점에서 조율하고 개편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획단계에서의 인력과 예산부족, 중장기적인 계획결여 등은 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인 통계청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통계청내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일상생활 시간에 관한 비교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비중을 「생활시간조사」에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개편계획은 해당 통계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한편, 이 비전속에서 이후 조사의 내용과 방식 등을 미리 논의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과 예산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적인 조사주기: 1-3년으로 단축

현행의 5년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1년-3년 정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5년이라는 조사주기가 너무 길지 않은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이 의문은 일반인들 뿐 아니라 「생활시간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서도 제기된다. 가령 2009년도의 조사결과가 공표되고 원시자료가 가용한 2010년 이전에는 2004년도 조사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2008년 혹은 2009년에는 이미 2004년도의 생활시간자료가 낡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구의 시의성을 상실케 된다. 조사주기단축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생활시간조사」 업무수행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이다. 통계청내 다른 조사와 조사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조사에서 「생활시간조사」 업무인력확보에 공백이 생긴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업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조사주기단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주기조정 등에 대한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예산 및 인력배정과 같은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도 포함될 것이다. 조사주기의 단축은 변동하는 생활세계의 모습을 뒤늦지 않게 보여줌으로써 「생활시간조사」의 시의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생활시간조사」를 간단없이(즉, 장기적인 조사주기 말미에 새로운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조사주기단축의 또 다른 효과로는 시계열적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급속히 변하는 생활세계를 그 보다 짧은 간격으로 살펴본다면 시계열적인 흐름이 보다 유의미하고 명확해질 것이다. 한편, 「생활시간조사」 조사주기단축은 통계청내 다른 조사사업의 주기와 일치 혹은 유사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조사사업주기간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시간조사」의 인원확보 문제, 그리고 「생활시간조사」에 참여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의 확보 문제는 보다 수월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3. 봄, 가을 조사시점: 효과적인 다변화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는 이전 조사와는 달리, 생활시간사용의 계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연 3월, 9월의 조사시점이 이에 부합하는가를 의문스럽다. 전문가 FGI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 그리고 학생들에게 3월과 9월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청 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봄과 가을 구분에 따른 생활시간상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구분 조사에 따른 실익이 없는 셈이 된다(내부진단 참조). 결국 의도는 좋았지만, 시간과 노력만 허비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생활의 계절적 차이나 변화가 뚜렷한 것은 사실이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이를 파악하고 그 유형을 찾아내려는 것도 그 조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이다. 다만 생활의 계절성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령, 학생들은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연간 생활의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직장인들은 직장생활과 휴가기간의 생활 시간사용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시점을 봄, 가을로 나누기 전에, 「생활시간조사」에서 계절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몇 개의 시점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사시점을 다양화하는 작업은 예산, 인력 뿐 아니라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가중치산정 등과도 연관을 갖게 된다.

4. 심층연구에 제한적인 조사내용: 항목조정과 조사연계

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 지표의 다양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전문가 및 일반이용자들의 FGI에서 「생활시간조사」는 분석에 동원될 수 있는 변수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생활시간조사」가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용자(특히 연구자)들이 생활시간사용패턴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들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심층분석은 제한되고, 연구자들의 이용의지가 약화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생활시간조사」에 포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구변수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대신, 특정 목적을 가진 조사문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한다. 2009년도 조사의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한

정보(예. 가구원구성과 가구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가 빠져 있는 반면, 성역할 태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시간조사」와 다른 사회조사(예.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동일한 표본들에 대해 같은 혹은 유사시점에서 조사를 연계해서 실시하게 되면, 다른 사회조사에서 확보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기별로 연계되는 사회조사를 달리하게 되면, 주기별로 주제 혹은 조사특성을 갖는 「생활시간조사」가 될 것이다.

「생활시간조사」와 다른 조사와의 연계에게는 응답자의 부담을 비롯해 조사실시기간 및 방법 등에 걸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응답거부 혹은 응답자부담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조사는 「생활시간조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조사수행상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적 괴리: 조사대상자 범위-일지기입능력

「생활시간조사」는 10세 이상의 응답자가 시간일지를 스스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력이나 기억력 등에서 생물학적 혹은 인지능력의 제약이 있는 경우 사실상 조사대상자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특히 노년층에서 심신상의 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기입식 일지를 요구한다면, 자기기입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들은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조사모집단의 규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와 성격을 좀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시간조사」의 결과가 일지기입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10세 이상 전국민의 그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선정에서 일지기입능력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일지기입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스웨덴의 경우는 연령의 상한선(예. 64세)을 설정해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조사원의 편이에 따라 일지기입능력을 자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기입능력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선정은 표본이 모집단에 개념적으로 보다 근접하게 한다(즉, 언급되는 대상과 조사된 대상간의 불일치가 적어진다). 한편, 조사원들이 일지기입능력이 떨어지는 조사대상자를 대신해서 혹은 도와서 일지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지기입능력의 정도에 따른 현장에서의 조사방식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6. 자기기입식 자료수집방법의 현실성: 구분문항의 보완

일지기입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모든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시간일지를 작성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령, 해독력이 있고 글쓰기가 가능하지만, 주어진 시간일지의 글씨와 칸이 너무 작아 일지를 작성하기 힘든 응답자도 있다. 현장 조사원들에 의하면 이런 사례는 특히 독거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데, 조사원들이 노인들의 기억을 더듬어 일지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지작성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일지를 작성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할 것인데, 이 경우 다른 가구원이 대신해서 일지작성을 해 줄 개연성이 크다. 대리기입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기입의 원칙을 고수하기란 힘들다.

다양한 인구학적 계층과 동일가구내 여러 가구원들의 생활시간사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굳이 대리기입의 사례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조사표에 자기기입과 대리기입을 묻고, 대리기입시 대리기입자와 대리기입사유 등을 묻는 문항들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추가문항은 자기기입과 대리기입의 신뢰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제를 남길 것이다. 그러나, 대리기입사례의 현황과 특성 등의 파악은 향후 「생활시간조사」 연구설계를 조정하는 지침 역할을 할 것이다.

7. 현장조사원의 교육기간 및 실사기간의 적절성

「생활시간조사」는 현장 조사원이 해당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면접조사와 응답자가 작성하는 일지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원은 면접조사와 함께 해당 가구의 가구원에게 일지작성요령을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현장 조사원은 일지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구원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교육일정은 하루에 그친다. 과연 하루 동안에 조사실시요령, 조사지침서 교육, 행동분류해설, 시간일지부호기입요령, 조사표 내용검토방법, 조사표회수 및 제출방법 등을 배우고, 이를 실습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내부진단 참조).

현장조사원의 고충 중의 하나가 조사실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가구가 5개 그룹으로 가구별로 시간일지 작성일자가 할당되고 그에 따라 조사 일정이 결정된다. 현장조사원들은 표본가구를 점검하는 이 과정(2일간의 준비조사)에서 일자별로 조사가구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실사기간(12일) 동안 응답자의 응답여부 및 정도,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회수된 자료의 행동분류를 검토하고 입력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기간의 마지막 시점에 회수된 조사표의 경우는 내검 및 입력이 매우 촉박하다. 이 문제는 결국, 조사의 질 뿐 아니라 조사원의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생활일지작성요령을 전달하고 지도하는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1일간 교육 및 실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준비조사에서 조사표정리 및 자료입력을 위해 현장조사원에게 요구되는 시간 또한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현실적인 조사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기간의 연장은 예산, 인력 및 조사일정 등을 재조정할 과제를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사원들이 조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8. 조사원 및 응답자 관리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에게 부담이 큰 조사이다. 이는 사생활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사이며, 10분단위로 생활일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응답자 부담은 응답거부로 이어져, 조사원의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한편 조사원은 다른 조사와는 달리 일지작성요령을 전달하고, 작성된 일지를 점검하여 복잡한 행동분류체계에 따라 입력하는 작업 등을 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종류가 많고, 업무량 또한 많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제1차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이 제2차 조사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보다 적절한 수준의 답례품(비) 준비를 들 수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일지수첩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인정하는 등은 응답률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를 가진다. 조사 호응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들 수 있다. 방송이나 매체 등을 통해 「생활시간조사」의 중요성이 전달되고 인식된다면, 당연히 이 조사에 대한 호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장 조사원에 따르면, 실제 이 조사의 중요성을 본인들도 전하지만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매체홍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조사가 임박해서 「생활시간조사」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사회이슈별로 분석해서 알림으로서 응답자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사원

부담과 관련해서는 조사원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업무량이 적어 지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장 조사원들의 요청이기도 하다. 한편, 현장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활시간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에게는 다른 조사에서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이를 보다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9. 홍보부족과 낮은 인지도

통계청에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발간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국민이나 자료이용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호응도도 낮게 되며, 이용자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조사 자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관한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 「생활시간조사」의 분석 결과중 관련된 부분을 언론매체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방안이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는 학술경진대회나 학술공모전 등을 통해 이들의 관심과 이용욕구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생활시간조사」를 담당하는 사회통계국에서 2010년 11월에 생활시간사용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주최/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0. 간행보고서 발간

「생활시간조사」 조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제1권 「생활시간량편」, 제2권 「시간대별 행위자비율편」, 3권 「지역별 생활시간편」 등의 세 권으로 구성된다. 우선, 분량이 상당한 보고서를 종이책자형식보다는 e-book 이나 pdf 파일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접근이나 보관 및 이용에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고서의 내용면에서 주요한 통계표만을 추려서 한 권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KOSIS 등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용어선택 등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편집상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생활시간조사」의 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생활시간조사」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비고
중장기적 개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인식제고와 예산 및 적절한 인력배정을 통해 조사의 일관성 확보 및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적 비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반 전문성 및 지속성 향상 -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조직적 개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부서간 인력 및 예산배분 조정문제 - 중장기적 지향점과 구체적 방안 논의 	p27
조사주기를 1~3년으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 지속성과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조사주기 조정의 타당한 근거 마련을 통해 1~3년으로 조사주기 단축 개편 검토 및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 시의성 향상 /자료의 시계열적 성격 강화 - 업무수행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조정 근거 및 방식에 대한 논의 - 주기조정에 따른 예산 및 인력배정 현실적 여건 고려 	p28
조사횟수 및 조사시점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생활의 다양성 및 계절성 포착을 위해 조사횟수 증가 - 계절적 차이, 유형 파악 가능(예. 학생-학기 vs. 방학, 직장인-근무 vs. 휴가기간)하도록 조사시점을 다양화(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간사용의 시간적(연간) 대표성 및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대표성 확보 방안 논의(조사횟수, 시점, 요일 등) -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비교성 논의 - 조사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 인력, 표본 규모 추출방법 논의 	p28~29

<p>다양한 연관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구조사표, 다른조사 등과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조정: 가구조사표와 같은 부가항목 포함 및 부가항목 적절성 검토 - 조사연계활용: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과 같은 다른 사회조사와 연계하여 심층연구 활용가능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자료제공: 심층연구 활용 가능 - 조사비용 및 노력절감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조정 근거방안 및 시계열성 논의 - 조사연계의 현실성, 응답부담, 연계방식 등 논의 	<p>p29~30</p>
<p>조사대상 상한 연령 등 범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일지 기입 능력 판별과 관련해서 연령 상한 및 하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국가 사례 검토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대상과 조사대상자간 괴리 감소 - 조사원 대리기입 시간 및 노력 감소: 조사방식 편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지기입 능력 판별 방안 논의(예. 스웨덴: 연령 상한선 64세) 	<p>p30</p>
<p>설문문항에 자기기입과 대리기입 구분 항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기입사례 현황 및 특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향후 조사에는 자기기입, 대리기입 구분, 대리기입자와의 관계, 대리기입사유 문항란 추가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기입사례 현황 및 특성 파악: 연구 설계 조정 지침 역할 - 조사환경의 현실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방식에 따른 신뢰성: 자기기입과 대리기입간의 비교분석 요구 	<p>p31</p>
<p>현장조사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간 및 현장실사 시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및 조사자료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조사에서는 현장 조사원의 교육기간과 실사 시간 등의 전반적인 일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및 조사자료의 질 향상 - 조사원 관리 효과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부터 고려 - 교육 및 실사기간 연장시 예산, 인력, 조사일정 재조정 	<p>p31</p>

<p>학술대회, 논문 공모전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p>	<p>- 사회이슈에 대한 생활시간분석 결과를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 개최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높은 관심과 이용 촉구</p>	<p>- 생활시간조사 전반적 위상 향상</p>	<p>- 생활시간분석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예산 및 인원 확보 마련 어려움(다른 조사와의 공유)</p>	<p>p33</p>
<p>e-book/PDF 등의 전자문서화 확대 주요 통계표만 추려 간행물 발간 및 KOSIS 통한 접근 쉽게 하기 통계표 형식, 내용, 용어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p>	<p>- 2004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지속 및 확대 실시 마련 - 인력 및 시간, 예산 확보를 통해 간행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작업 실시</p>	<p>- 접근, 보완, 이용성 제고</p>	<p>- 시간, 예산, 인력확보 문제 - 제공내용 및 형식에 대한 논의</p>	<p>p33</p>

제 3 장 해외사례 및 발전전략

한국의 「생활시간조사」와 유사한 해외 사례들을 예를 들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각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는 해외 사례들의 「생활시간조사」의 구성방식에 초점을 두고 주요 시사점을 찾도록 한다.

첫째,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주기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5년 주기를 가지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10년 주기를 가지기도 한다. 한편, 미국은 매월 조사 후 1년 단위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주기는 조사기관의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동하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활방식도 그 만큼 빠르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사례처럼 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2회에 걸쳐 봄(3월), 가을(9월)에 실시하였다. 일본은 여전히 1회 조사에 그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간 4회 조사(호주, 독일) 혹은 연중조사(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의 나라가 연중 1회 조사에서 조사 횟수를 늘여서 연중 12회 조사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시간과 관련된 조사는 시간적 속성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 횟수를 늘일 필요가 있다. 조사 횟수의 증가는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하한 연령은 10세 혹은 15세 이상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하한 연령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상한 연령은 대체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상한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노년층에서의 일지작성능력이나 응답능력 등을 고려한다면 조사대상자의 상한 연령을 선정해 표본과 조사모집단간의 근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 외에 매우 제약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이 조사된다. 일본의 경우, 전체가구원에 대한 사항과 함께 연령대별로 가구원에 관한 특이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조사자체의 문항은 제약되어 있지만, 이를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와 연계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다양하게 되어 있다. 자료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례이다.

다섯째, 한국의 행동분류체계는 호주와 유럽의 체계와 유사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해지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통계국이 제정한 시간사용통계를 위한 국제행동분류법(ICATUS)은 이에 대한 합의가 크다.

<표 9> 「생활시간조사」 통계 국가별 국제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캐나다
통계명 (조사명칭)	생활시간조사 (Time Use Survey)	ATUS (American Time Use Survey)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The Time Use Survey	GSS (General Social Survey-Time Use)
조사기관	통계청	The U.S. Censu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Statistics Bureau	(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tatistics Canada
조사유형	조사통계 (지정통계 제10152호)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연혁	조사시작 : 1999년	조사시작 : 2003년	조사시작 : 1976년	1 차 : 1995년 (pre-coded 조사) 2 차 : 2000년 (after-coded 조사) 3 차 : 2005년 (pre-coded조사)	조사시작 : 1985년
조사기간 (the latest)	2009년 9월(10~21일)	2007년 1월~12월(매월)	2006년 10월(14~22일)	2005년 2, 6, 9, 11월	2005년1월12~12 월13일
행동코딩	after-coded	after-coded		pre-coded(31여 개의 카테고리)	
시간일지	개인당 2일 작성	개인당 1일만 작성			
조사단위	가구내 10세 이상 모두	가구당 15세 이상 한명만	가구	가구	가구
조사목적	국민 생활방식 파악,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파악	국민 생활방식 파악	다양한 집단 생활방식파악 및 사회현상 이해 및 해석	집단간 생활방식 차이를 파악	사회적 트렌드 분석 및 국민 복지증진
조사범위	만10세 이상 가구원	15세 이상 가구원	10세이상 가구원	8세 이상 가구원 (after-coded:8- 16세, pre-coded: 16세이상)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항목	<p>-가구/개인사항 다른 곳 주택소유여부, 주거전용면적, 자기용 보유, 미취학 자녀, 가구원 전체 소득,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시간부족여부(이유), 성역할 분담, 경제활동유무, 부업여부, 주/부업 시간, 산업, 직업, 직장에서의 지위, 휴무형태, 업무 후 피로도, 고용형태, 정규근무시간</p> <p>-시간일지(2일 동안 10분 간격, after-coded 조사), 주행동, 동시행동, 집안밖</p>	<p>-가구/개인 사항 고용, 직장에서의 지위, 고용형태, 여행, 수입, 교육 등</p> <p>-시간일지(1일 동안 15분 간격, 조사), 주행동, 동시행동, 장소, 함께한 사람</p>	<p>-가구/개인사항 성별, 가구주와 관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이동전화 및 컴퓨터 사용, 가족보살핌 여부, 경제활동유무, 고용상태, 직업, 일한 시간</p> <p>-시간일지(2일 동안 30분 간격, pre&after-coded 조사) 주행동, 동시행동, 장소, 함께한 사람, 인터넷 사용여부</p>	<p>-가구/개인사항 언어, 가구주와 관계, 보유 내구재 종류, 농사 및 과수 여부, 소득, 경제활동여부, 모금활동여부, 도움을 받은 사람 및 횟수, 집주인은 누구, 인터넷사용가능 여부, 가구원 중 운전가능한 자, 스스로 가구 수리 여부</p> <p>-시간일지(1일 동안 10분 간격, pre&after-coded 조사), 주행동, 동시행동, 장소, 함께한 사람</p>	<p>-가구/개인사항 시간 느낌, 무급 노동, 봉사활동과 기부, 건강과 활동 제한, 스트레스 주요 요인, 행복척도, 삶의 만족도, 연령, 본인의 교육정도, 부모(배우자)의 교육 정도, 문화 및 스포츠 등 활동참여 여부, 사회적 네트워크, 신용정도</p> <p>-시간일지(1일 동안 5분 간격, 조사), 주행동, 장소, 함께한 사람,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동</p>
조사방법	표본조사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	표본조사 CATI	표본조사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	표본조사 면접조사(사후코 딩조사의경우 자기기입식)	표본조사 CATI
표본규모 (the latest)	전국 약 81,000가구(약21, 000명)	약 12,250명	약 80,000가구	약 5,000개의 시간일지	약 19,597명
조사주기	5년	매월조사 (매월 조사, 연간발표)	5년	5년	5년
결과공표 *공표주기, 공표방법	공표주기: 조사종료 6개월 후,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공표주기: 매년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공표주기: 조사종료 다음해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공표주기: 조사종료 다음해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공표주기: 조사종료 다음해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주요 이용자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표 9 계속> 「생활시간조사」 통계 국가별 국제비교

구분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통계명 (조사명칭)	Time use survey	Time Use Survey	Time Use Survey	mini-TUS(Time Use Survey)
조사기관	ABS(Australians Bureau of Statistics)	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Statistics Netherlands
조사유형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연혁	1차: 1992년 2차: 1997년 3차: 2006년	1차: 1966년 2차: 1974~75년 3차: 1985~86년 4차: 1999년	1차: 1991~2년 2차: 2001~2년	1차: 1987년 2차: 1997년
조사기간 (the latest)	2006년 2/20~3/4(1차), 4/24~5/6(2차), 6/26~7/8(3차), 10/23~11/4(4차)	2009년9월14일~2010년9월14일(6차)	2001년4월~2002년3월	1997년 1~12월
조사단위	가구내 15세 이상 모두	가구	가구	가구
조사목적	다양한 집단별 생활방식과 사회이슈별 시간사용 파악 및 과거 시간사용패턴의 변화양상 파악	국민의 생활방식 파악	여성, 가족정책, 노인관련 연구, 교통수단 및 이동전화 사용파악	시간활용 형태와 여가생활의 파악
조사범위	15세 이상 가구원	15세 이상 60세 미만 가구원	10세 이상 가구원	12세 이상 가구원
조사항목	- 가구/개인관련사항 가구관련 내구재, 인종, 교육정도, 직장에서의 지위, 소득, 아동보호, 장애정도, IT사용 - 시간일지(2일간 5분 간격 조사, after-coded) 주행동, 동시행동, 함께한 사람, 누구를 위해, 장소	- 가구/개인관련사항 - 시간일지(pre&after-coded 혼용)	- 가구/개인관련사항 - 시간일지(3일간 10분 간격 조사)	- 가구/개인관련사항 가구특성, 지난4주간의 용역구매 횟수, 교육, 고용상태, 수입 등 - 시간일지(그 전날 1일간 15분 간격, pre-coded조사) 주행동, 동시행동, 함께한 사람, 장소, 고용된 상태의 행동여부, 보수가 주어졌는지 여부

조사방법	표본조사 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	표본조사 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 사후(10분간격)&사전 (15분간격)코딩 방식의 혼용	표본조사	표본조사 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
표본규모 (the latest)	약 3,870가구		약 5,400가구, 12,000명, 37,000개의 시간일지	약 50,000명
조사주기	5년	약 10년	10년	10년
결과공표 *공표주기, 공표방법	- 공표주기: 조사종료 다음해 -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 공표주기: 조사종료 다음해 -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 공표주기: 조사종료 다음해 -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인터넷 게재 및 브로셔 발간("Wo bleibt die Zeit")	- 공표주기: 조사종료 다음해 -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주요 이용자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등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등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등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학계 등

참 고 문 헌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통계청(2004),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1~3권
통계청(2004), 「2004년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통계청(2009),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1~3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종합실시계획:1차 및 2차조사 실시계획
통계청(2010),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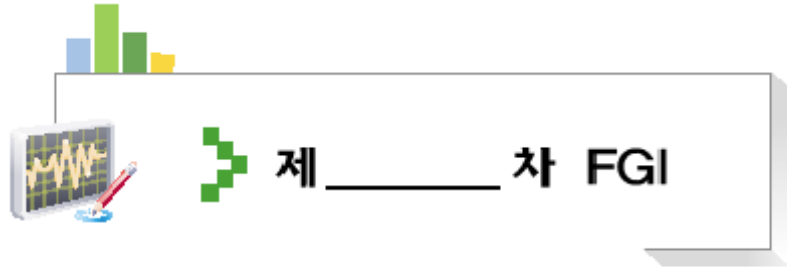
<참고 사이트>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생활시간조사 홈페이지 <http://survey.go.kr/lifestyle/>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http://www.timeuse.org/>

<부록 1> FGI 결과보고: 전문가 집단



부	문	통계 V
통	계	생활시간조사
승	인	제10152호
작	성	통계청
F	G	2010년 5월17일
품질 진단 팀	연구	김정석
	원	
	연구	고영미
	보조	
	원	

제1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선정방법 * 학술 및 연구, 기타 목적으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이용자들을 1차적으로 선정함 * 1차적으로 선정된 전문이용자들 중 원시자료(raw data) 사용 및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최종적으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 이용자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고객 (기업경영정책수립자 포함) _____명 - 교수 _____명 - 연구원 _____명 - 기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이용자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_____명 - 대학생 _____명 - 일반인 _____명 - 기타() _____명
◦ 실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소회의실
◦ 소요 시간	약 75분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직위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정책연구실	실장
2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력정책센터	연구위원
5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사회자, 기록자, 관찰자 소개 → 주제, FGI 결과의 용도, 참가자 소개 → 기본원칙 안내 및 사전 인터뷰 가이드, 2004/2009년도 시간조사 설문지, 2004년도 보고서 중 시간조사 개요 부분 인쇄물로 제공 → 질문 → 토론 → 결론 	◦ 사회자 : 김정석
	◦ 기록자 : 고영미
	◦ 관찰자 : 최경순, 김태현
	◦ 녹음·녹화 여부 : 녹음

제2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의견 내용	핵심어
자료활용성-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사용의 현황에 대한 일차적인 파악에는 용이하나, 시간사용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조사항목은 매우 제한적. ■다른 자료원과의 통합이용시 중복되거나 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적임 	<p>조사표 구성시 보다 많은 사회인 구학적 변수들이 포함되도록 조정 (예. 가구조사표).</p> <p>다른 조사표(예. 사회조사)와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생활시간조사 자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활용
조사주기, 실시시간, 대상 및 규모, 방법 등의 적절성 및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주기에 대해서는 이견 ■현행 조사시점(봄, 가을)은 다소 애매함-계절성 파악은 좋으나 봄, 가을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표본수 감소문제(1999, 2004년에 비해 2009년 조사의 경우 표본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수의 표본과 조사주기(5년 주기 또는 3년 주기)를 유지하면서 계절성(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영하는 조사방식 제안. ■혹은 소규모 모듈조사를 통해 매년 혹은 단기적인 변화추이를 살피는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주기 ■조사시점 ■표본수
통계작성기관 기관장의 인식, 전문성, 작성환경, 절차의 적합성, 자료수집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조사주기라는 특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작성자의 전문성 및 숙련성 문제(조사주기 간격이 길어서 담당자 교체)가 제기되며, 이러한 문제는 자료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약 98%가 넘는 높은 응답률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가구내 응답자와 불응자간의 구분 등의 정보를 찾기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간조사 통계작성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계작성환경 개선이 필요함(전문인력확보 및 유지) ■응답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야 함. 이는 표본가구 및 응답자에 대한 최초표본회수율, 대체표본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정확성 ■응답률

<p>원자료와 보고서 이용의 편리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시자료의 제공은 이용자가 원하는 타입의 파일형태로 제공되어 만족도를 높임. 그러나 원시자료제공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이용자의 경우 자료 구입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함 ■종합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구성하여 연구자들에게 지침서로서의 역할 제공 ■5년 조사주기에 따른 문제와 함께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도가 저조한 편임 	<p>자료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구입과 관련된 정보 공지에 유의하고, 원자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대중적 홍보가 필요함.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술적 참여를 독려하기 동기부여 및 지원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시자료 ■이용활성화
<p>품질진단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기입 및 대리응답에 대한 부분 (예: 조사표 작성이 어려운 가구원들) ■조사원들의 행동일지 코딩 입력 부분이 자료수집의 정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 	<p>대리기입 및 대리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란 추가 및 행동분류 코딩 지침서의 구체화 및 세분화 작업 검토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응답 ■코딩
<p>생활시간조사에 대한 만족도 및 수정 및 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조사 자료와의 통합 작업의 어려움 ■원자료 제공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고려해야 함 ■행동분류체계의 모호성-표준화 지침 	<p>다른 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높이는 방안 및 원자료 제공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료 활용 ■통합 작업 (merge) ■행동분류

※ 녹취록 및 질문지 별첨

제3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 요구사항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 주요 토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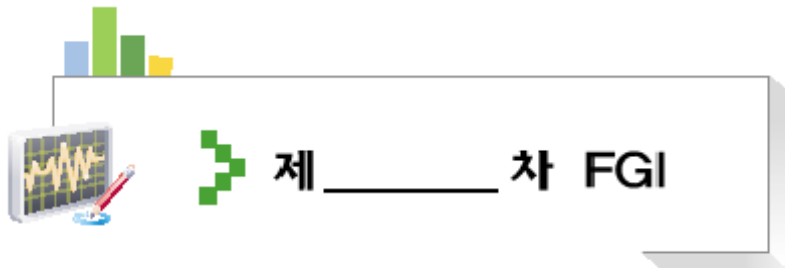
1. 참여자들의 다수가 자료생성과정보다는 자료이용자들임. 따라서 활용에 대한 토론이 많았음.
2. 생활시간조사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 그러나 심층 분석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는 부족함. 이는 생활시간 자료에서 생활시간사용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요구되는 요인들이 적기 때문.
3. 조사주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조사시점은 현행의 봄, 가을로 계절성이 파악되기는 힘들다고 판단. 차라리 조사규모를 쪼개어 4계절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표본수가 작아진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일정 수준의 표본을 유지하되, 조사주기를 단축시키고 조사시점을 다양하게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
4. 생활일지가 과연 자기기입식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제기. 대리응답과 대리기입 등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5. 행동분류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현장조사원들의 코딩 및 내검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설명이 요구됨.
6. 응답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기서 말하는 응답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7. 생활시간자료를 다른 자료와 연계 혹은 통합시켜 제공할 가능성.
8. 생활시간조사의 업무환경(인력배정 및 업무지속성)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 요구사항 정리

· 주요 개선의견

1. 생활시간조사의 조사항목 중 최소한 가구원 정보는 제공/조사표 구성시 불필요한 항목은 제거하되,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항목은 추가/조사항목이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회조사자료와 연계해서 제공할 가능성을 검토.
2. 조사주기를 다른 사회조사와 맞추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
3. 생활시간조사의 현장점검(자기 기입여부, 행동분류코딩 및 내검 작업 등)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필요.
4. 응답률 등 보고서의 용어에 대한 정리 및 엄격한 사용
5. 생활시간조사 업무 담당인력의 확보 및 경험자들의 업무지속 방안검토

<부록 2> FGI 결과보고: 일반이용자 집단



부	문	통계 V			
통	계	명	생활시간조사		
승	인	번	호	제10152호	
작	성	기	관	통계청	
F	G	I	일	자	2010년 5 월25일
품질 진단 팀	연	구	원	김정석	
	연	구	보	조원	고영미



제1부

회의 준비 및 진행과정

I. 회의 준비과정

1. 참석자 선정	
<p>◦ 참석자 선정방법</p> <p>*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만족도 명부를 바탕으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일반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함</p>	<p>◦ 참석자 현황 (집단 구분에 ✓하고 인 원수를 각각 기입)</p> <p><input type="checkbox"/> 전문 이용자 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고객 _____명 (기업경영정책수립자 포함) - 교수 _____명 - 연구원 _____명 - 기타() _____명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이용자 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_____5_명 - 대학생 _____명 - 일반인 _____1_명 - 기타() _____명
◦ 실시 장소	동국대학교 동국관 5층 소회의실
◦ 소요 시간	약 60분

2. 회의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소속(부서명까지 기재)	직위
1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2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인턴
4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6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II. 회의 진행과정

회의 진행	
<p>* 인사말, 사회자, 기록자, 관찰자 소개 → 주제, FGI 결과의 용도, 참가자 소개 → 기본원칙 안내 및 사전 인터뷰 가이드, 2004/2009년도 시간조사 설문지, 2004년도 보고서 중 시간조사 개요 부분 인쇄물로 제공 → 질문 → 토론 → 결론</p>	<p>◦ 사회자 : 김정석</p> <p>◦ 기록자 : 김송은</p> <p>◦ 관찰자 : 없음</p> <hr/> <p>◦ 녹음·녹화 여부 : 녹음</p>

제2부

회의록

○ FGI 실시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

부 문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의견 내용	핵심어
자료(원자료 포함) 이용 경험 및 다른 자료원과의 통합이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다른 자료원과의 통합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 부족
조사주기, 실시기간, 대상 및 규모, 방법 등의 적절성 및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조사주기가 길고, 조사시점 선정이 모호함. 현대 일상인의 빠른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듯함. ■시간일지 작성시 자기기입식 방법의 정확성에 의문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5년 조사주기보다 간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한 계절성 및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시점 선정이 좋을 듯함 ■자기기입식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주기 ■적절성 ■적합성
통계작성기관 기관장의 인식, 전문성, 작성환경, 절차의 적합성, 자료수집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의 전문성, 작업환경, 절차의 적합성, 자료수집 정확성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사용자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및 자료 활용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정확성
결과보고서의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표의 경우 기술적 수준에서의 제시 정도에 머물고 있음, 형식적인 보고서 형태로 활용도 측면에서 실용적이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이용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들이 필요함 (예: 수식, 기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실도 ■실용성
원자료와 보고서 이용의 편리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료 구입의 까다로움 및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이용자들을 고려한 자료의 접근성 제고 및 자료구입 절차 및 비용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의 접근성 ■활성화
조사문항의 적합성 및 삭제, 수정, 추가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문항의 적합성 및 기준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문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변수로 활용할 문항들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함.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문항의 추가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성 ■기준

<p>품질진단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응답률(98.1%)에 대한 의문점 ■조사표 특히 시간일지 자료 입력의 어려움 및 까다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응답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설명이 필요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간일지 자료 입력시 표준화된 지침 사용과 함께 조사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률 ■코딩
<p>생활시간조사에 대한 만족도 및 수정 및 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인지도 ■자료의 접근성 및 이용도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자료의 접근성 및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예: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정보 제공, 온라인상의 접근의 편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접근성 ■이용도

※ 녹취록 및 질문지 별첨

제3부

FGI 결과 요약 및 개선 요구사항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

· 주요 토의 내용

1. 참가자 다수가 대학원생이고,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은 편임.
2.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홍보와 정보 제공이 보다 많이 요구됨
3.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조사주기가 너무 긴 것으로 보임.
4. 시간일지를 10분단위로 응답자가 얼마나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 응답률이 너무 낮지 않은가 등을 통해 자료의 질에 대한 의문제기
5. 조사문항이 시간대와 시간사용 외에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

○ FGI 회의록을 토대로 개선 요구사항 정리

· 주요 개선의견

1. 생활시간조사가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결과작성시기에 언론매체에 결과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반인들이 생활시간조사를 알 기회가 적고, 그 방법 또한 제한적임. 사회적 쟁점에 따라 수시로 생활시간조사결과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2. 시간일지를 본인작성, 대리작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응답률 등의 용어에 대해 보다 엄밀한 정의를 제공해야 함.
3. 사회변동의 속도를 고려해 조사주기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4.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을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욕구수준을 반영해 보다 많은 변수들이 가용하도록 조사표를 조정하거나 다른 사회조사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부	문	통계 V			
통	계	명	생활시간조사		
승	인	번	호	제10152호	
작	성	기	관	통계청	
품질 진단 팀	연	구	원	김정석	
	연	구	보	조	원

제1부 점검계획

○ 점검을 위해 채택된 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 등에 대하여 기술

1. 점검 방법

- ✓ 점검대상: 2009 생활시간조사 조사기획자(통계작성담당자) 및 경인(서울), 동북(춘천), 호남(제주), 충청(대전, 충주) 지역의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 ✓ 점검방법: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과의 면담 및 생활시간조사 현장 방문
- ✓ 점검내용: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각각에 해당하는 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함.
 -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 현재 사용 중인 자료수집 방법
 - 자기기입식 조사방법 채택시 조사 정확성을 위한 체계
 - 조사표 회수율
 - 무응답율
 - 자료수집 비용 및 시간
 - 현장 점검 및 관리 체계
 - 자료수집 역할분담 체계, 주요 업무, 업무량
 - 부실조사 사전 예방 지침 마련 및 시행
 - 과거 조사 경험(방문시간대, 면접시간, 재접촉시도 횟수, 통신수단 등) 통한 수집절차 정보 축적 및 활용
 - 실시지도 계획 수립, 수행현황, 도출된 문제점 및 착오내용에 대한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 조사내용의 정확성(사전사후 내용검토) 확인 체계
 - 응답자 추적조사(재조사)를 위한 연락처 확보
 - 조사내용 착오유형 기록, 관리 및 분석
 - 현장 내용검토(에디팅) 지침 제공
 - 조사원 관리
 - 조사원에 대한 지침서 제공, 조사요령 지도
 - 조사원의 업무수행능력 점검 및 향상 체계
 - 조사표 관리
 - 조사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제공
 - 조사원의 조사수행 성실도 파악
 - 신규조사원, 착오다발자 등에 대한 특별 지도
 - 응답자 관리
 - 부재 및 불응가구 관리 지침
 - 응답자와의 유대관계(답례품 제공, 답례품의 적정성)
 - 표본대체 지침제공 및 관리
 - 최초 표본리스트 기준의 조사 성공률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참석자	장소	주요 점검사항
2010년 5월 28일 오전 11:00	조사기획자1, 관리자1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조사원 관리자 면담을 통한 현장 점검 및 관리체계, 조사원 관리 점검 등
2010년 6월 1일 오전 10:30 오후 3:30	관리자1, 조사원2 /연구원, 연구보조원	충청지방통계청 충주사무소, 제천 (조사원 자택)	충주 지역 현장 점검 및 관리체계, 조사원 관리, 대상처/응답자 관리 등
2010년 6월 3일 오후 2:00	관리자1, 조사원2 /연구원, 연구보조원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	동북지방 중 춘천지역 현장 점검 및 관리체계, 조사원 관리, 대상처/응답자 관리 실태 점검
2010년 6월 4일 오후 3:00	조사기획자1, 조사원2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전통계청	조사기획자 추가 면담, 대전지역 내검원, 조사원 면담 및 조사현황 등 점검
2010년 6월 8일 오전 11:00	관리자1, 조사원2 /연구원, 연구보조원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원관리자 및 조사원 면담을 통한 서울지역 수집자료 정확성 파악
2010년 6월 11일 오후 12:30	관리자1, 조사원2 /연구원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제주지역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조사원 관리, 대상처/응답자 관리 등

제2부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부 문	문 제 점	개 선 의 건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수집 방법의 적절성</p>	<p>생활시간조사는 자기기입식(시간일지)과 대면조사(가구원조사)의 혼합 방식임. 자기기입식의 한계가 보임: 시간일지작성은 일부 대상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예. 기록능력이 없는 인구층)하기 때문에 대리기입도 이루어지는 상황/ 조사표 작성시 가구원내 대리응답 및 대리기입 발생 문제(예: 남편조사표를 아내가 대신 작성)</p>	<p>생활시간조사 특성상(10분 단위로 행동일지 기록) 100% 자기기입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 판단됨. 따라서 조사표에 자기기입, 면접원 대리기입(독거노인의 경우), 가구원대리기입(부부간 대리기입의 경우) 등에 대한 구분란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현장점검 및 관리체계</p>	<p>1) 통계담당자 및 관리자의 실사지도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실사준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자료의 특성상 예비조사 및 실사교육 지도에서 받지 못한 다양한 행동유형들이 본조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게 있음. 2) 조사표 입력시 행동분류 코딩 및 내검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어려움을 많이 언급함. 또한 조사원의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p>	<p>1) 조사이전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행동유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류표가 준비되면 좋을 것이나,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임. 특히 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행동유형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조사기획단계에서 사회상을 반영하는 세밀한 분류표를 마련하되, 일부에 대해서는 기타행동으로 분류하기를 권함 2) 예비조사를 통한 경험 축적과 충분한 교육을 통한 조사원의 숙련성 확보가 향후 강화되어야 함. 또한 조사표 입력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 조사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원 관리</p>	<p>1) 조사원의 지원 및 참여율 저조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상 조사원의 노력 및 수고가 많이 요구됨.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원으로 참여했던 대다수가 다음번 조사에 불참하거나 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임. 2) 조사원 교육방법 및 기본적인 교육시간은 표준화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청이나 조사시기에 따라(대체로 신규 조사원이 많거나, 조사원이 외진 지역에 거주할 경우) 교육방식과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p>	<p>1) 조사원들의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한 업무량 대비 수당 인상 및 인센티브 제공, 조사업무량 감소방안 등의 방식을 향후 고려해야 함/대체로 임시조사원과 2) 조사원의 숙련도, 인지도, 조사경험 등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p>

<p>응답자 관리</p>	<p>1) 조사표 회수율이 98%이상이라고는 하나 이는 대체표본까지 포함한 회수율임. 최초표본리스트와 최종응답자리스트가 존재하나 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2) 가구별로 시간일지 작성일자가 5 그룹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표본내 가구대체가 매우 어렵고 복잡해짐. 결국은 해당 요일에 적격한 가구 선정, 조사표 코딩, 현장내용 검토시 시간부족 현상이 발생</p> <p>3) 생활시간일지는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노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지작성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이 일부 있음</p>	<p>1) 최초표본준수율의 수준과약과 향상을 위해 최초표본리스트와 최종응답자리스트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p> <p>2) 선정된 표본내 가구를 보다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한편, 조사기간 일정에 여유를 둬으로써 현장내용검토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3) 향후 조사에서 응답률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예: 응답자의 시간일지 부담 감소 및 응답에 비례한 답례품 제공 등)이 필요함.</p>
----------------------	--	--

제3부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를 통해 현장조사의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기술

- 1) 자기기입식의 한계/대리응답란의 추가-10분단위의 생활일지를 기록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답자(예. 시력이 나쁘거나 작은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들의 경우 조사원이 조사기간에 일어났던 행위들을 묻고 대신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한편, 동일 가구내 가구원이 다른 가구원의 일지(가령, 급하게 출장을 가서 일부를 대신 작성)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생.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들로 조사표내에 자기기입, 대리기입(대리 기입자와 사유 등)의 구분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일지기록 및 작성시점의 명기-10분단위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개의 경우 당일 저녁에 하루 일과를 더듬어 기록하는 것으로 보임.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10분단위의 정확한 기록은 매우 힘들. 따라서 일지를 작성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3) 행동분류의 복잡성과 Coding 어려움-주행동과 동시행동, 행동을 함께 한 사람들과 목적의 명기(예. 식사를 친구들과 한 경우, 이들을 밝히고 목적(친목 vs. 사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이상과 같은 복잡성은 Coding의 혼선을 가져오고, Coding의 자의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임. 지나치게 세분화된 행동분류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수준의 분류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장조사원들이 Coding 작업에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사실시후 Coding과 내검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현장 내검의 한계-시간일지는 응답자가 텍스트로 작성한 후, 이를 현장의 임시조사원이 Coding하게 됨. Coding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점은 응답자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하게 됨. 상당수의 응답자가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데, 이는 이미 일지작성으로 피곤한 상태(실제 다음의 생활일지조사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응답자도 적지 않음)이거나 기억을 더 이상 가다듬기 힘든 탓도 있음. 한편, 한 가구내 여러 가구원이 응답한 경우, 가구원간의 기록을 교차하게 됨. 시간사용을 기억에 의해 기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가구원간의 시간차이(예. 식사시간)마저 조사원이 확인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5) 조사원 유지, 확보문제-여느 조사원과 달리, 생활시간조사원은 가구조사표를 작성한 후, 생활일지를 응답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함. 또한 복잡한 행동분류를 Coding 하고 내검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해야 함.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함께 갖추어야 함. 그런데 5년 주기마다 조사가 실시되어 이전 조사의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힘들고, 유경험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인해 조사원 역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까지는 현장조사관리자(대부분 통계청 직원)와의 친분으로 조사원이 확보되지만, 업무량과 업무수당 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됨.

<부록 4>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진단결과



부	문	통계 V			
통	계	명	생활시간조사		
승	인	번	호	제10152호	
작	성	기	관	통계청	
품질 진단 팀	연	구	원	이기재	
	연	구	보	조	원

▶ 점검 개요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표본보고서 등), 면담자, 면담일시 등 기술

- 2009년 생활시간조사 표본설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음. 2004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였음.
- 표본설계 보고서와 2004년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표본설계와 추정 과정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조사 개요

조 사 명	생활시간조사	
작성기관명	통계청	
전 수 / 표 본 조 사	전수()	표본(0)
표 본 설 계 주 체	자체설계(0)	외부용역() 【용역사업자: 】
조 사 목 적	국민들의 하루 24시간 사용형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	
조 사 대 상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모든 사람	
조 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관련 항목, 개인관련 항목 : 조사담당자가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 채택 - 시간일지 : 시간사용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time diary)를 조사대상가구에 배포하여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기입하는 응답자 직접 기입식 조사방식(after-coded diary) 채택 	



표본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모든 사람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 내의 가구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함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사회조사의 표본조사구 사용 - 개인의 사생활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는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상 사회조사를 통해 통계청에 대한 인지도가 확보된 사회조사 표본조사구(1,333개)를 사용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A), 일반조사구(1)인 경우만을 조사모집단으로 사용하여 추출됨. 조사구 내 집단가구(기숙사, 보육원 및 양로원 등 시설가구는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됨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 표본추출방법 : 층화 2단 집락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확률비례추출방법을 이용하여 1,333개 조사구 추출 - 1차 추출 단위(PSU, 조사구) : 확률비례추출 적용 - 2차 추출 단위(SSU, 가구) : 첫 가구를 단순임의추출 후 연속된 15가구를 조사함 ◦ 생활시간조사 조사구 추출방법 : 계통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 표본조사구(1,333개)를 2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각 층에서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540개 조사구 추출함 - 표본조사구 내의 사회조사 응답 가구 전체 조사함(각 조사구당 15가구) : 총 8,100가구(회당 4,000가구) - 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전체 조사(약 21,000명) ◦ 1차 및 2차 조사용 조사구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3월) 및 2차(9월)로 나누어 조사하는 목적이 국민들의 계절별 생활실태 차이 유무를 파악하고자 함으로 표본으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추출된 조사구 중 홀수번째 조사구를 1차 조사용으로 짝수번째 조사구를 2차 조사용 조사구로 선정하여 두 조사간에 특성 차이를 최소화 함

<p>표본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0개 조사구, 각 조사구에서 15가구 조사(총 8,100가구) -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전체 가구원 조사를 통해서 약 21,000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표본관리과-882 (2008.12.24)호’ 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표본규모 검토 결과’ 참조
<p>가중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사후층화 보정을 산정되었음 -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값으로 추출율의 역수임, 생활시간조사는 사회조사시 추출된 표본에서 재추출되었으므로 사회조사의 추출물에 생활시간조사구 추출물을 반영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w_{hi}^0 = \underbrace{\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_{\text{사회조사 설계가중치}} \times \underbrace{\frac{n_h}{l_h}}_{\text{생활시간조사 설계가중치}} = \frac{S_h}{15 \times l_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dots, 25$) · i : 사회조사 표본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i = 1, 2, \dots, n_h$) · S_h : 사회조사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측도(설계당시 지역별 전체 가구수) · M_{hi} : h지역, i번째 사회조사 표본조사구내 전체 가구 수 · n_h : h지역내 사회조사 표본조사구 수 · m_{hi} : h지역, i번째 조사구내 사회조사 표본 가구 수(15가구) · l_h : h지역내 생활시간조사 표본조사구 수 - 사후층화보정 : 성·연령그룹별로 추계인구에 맞게 보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circ w_{hij} = w_{hij}^0 \times \frac{X_{h,sa}}{\widehat{X_{h,sa}}}$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 : 모집단 추정치 · \widehat{X} : 표본에서 조사된 응답자 총 가중값 · j : 표본가구원을 나타내는 첨자 ($k = 1, 2, \dots, m_{hij}$) · sa : 성별 및 연령별 그룹
<p>추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시간 :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행동별 평균시간, 주행동만 집계한 경우 1일 전체 평균시간의 합은 24시간임 - 추정값, 표준오차 및 분산

$$\bar{y}_G = \frac{\sum_h^H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I [hij \in G]}{\sum_h^H \sum_i^{n_h} \sum_j^{m_{hi}} w_{hij} I [hij \in G]}$$

- h = 1, 2, ..., H : 지역(특광역시, 시도 동부 및 읍면부)
- i = 1, 2, ..., n_h : 조사구
- j = 1, 2,, m_{hi} :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w_{hij} = h시도의 i 조사구내 j번째 가중치

$$\widehat{Var}(\bar{y}_G) = \frac{\sum_h^H \frac{n_h}{n_h - 1} (1 - f_h) \sum_{i=1}^{n_h} \left[W_{hiG} (\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 W_{hsG} (\bar{y}_{hsG} - \bar{y}_G) \right]^2}{\left(\sum_h^H \sum_i^{n_h} W_{hiG} \right)^2}$$

- $W_{hiG} = \sum_j^{m_{hi}} w_{hij} I [hij \in G]$
- $I(hij) = \begin{cases} 1 & \text{if } I [hij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CV = \frac{SE(\bar{y}_G)}{\bar{y}_G} \times 100$$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부문	문제점	개선의견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3월) 및 2차(9월)로 나누어 국민들의 계절별 생활실태 차이 유무를 파악하고자 함. 하지만 2개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절적 생활실태 차이 유무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크기를 늘리고 월별로 배분하는 방안 또는 rolling sampling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임.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 작성에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보정만을 반영하고, 무응답 조정은 거치지 않았음. 이는 실사 과정에서 무응답이 거의 없다는 의미임. 실사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응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됨. 아울러 가중치 작성과정에 무응답 조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보고서 상에 제시된 가구 기준 회수율이 99.9%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조사의 응답률과는 다른 의미로 판단됨. 표본대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불균등 가중치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가중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특이치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표본설계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방안, 발전전략 등 제시

-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표본설계는 모집단, 표본추출틀, 층화, 표본크기 결정 및 배분, 표본추출법, 가중치 작성, 추정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표본크기를 늘리고 월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조사월과 요일을 고려하여 표본가구나 대상자를 배분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표본오차 분석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설계효과 분석이나 가중치 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각 조사구당 최적 가구 수에 대한 검토 등이 요구됨
- 무응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됨. 아울러 가중치 작성과정에 무응답 조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보고서 상에 제시된 가구기준 회수율이 99.9%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조사의 응답률과는 다른 의미로 판단됨. 표본대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불균등 가중치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가중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특이치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부록 6> 「생활시간조사」 시간일지기록: 간이용 수첩



시 간 일 지			
	주로 무엇을 했나요	누구와 함께	동시행동
<input type="checkbox"/> 일	주로 한 행동을 10분간격으로 기록(18시-22시, 7시)	혼자, 배우자, 미혼남자, 그외가족, 기타	그 밖에 다른 행동
<input type="checkbox"/> 시			
	10		
	20		
	30		
	40		
	50		
<input type="checkbox"/> 시			
	10		
	20		
	30		
	40		
	50		
<input type="checkbox"/> 시			
	10		
	20		
	30		
	40		
	50		